

쾌적한 환경을 갖춘 산소 같은 병원

# 안산산재병원 (구 안산중앙병원)

안산산재병원은 1년 4개월에 걸친 리모델링 후 2013년 11월 새롭게 다시 태어났습니다.  
새롭게 단장된 안산산재병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 우수한 의료진과 첨단장비를 갖추고  
서부공업단지 근로자와 그 가족의 보건진료사업과 지역주민의 의료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치료부터 재활까지 원스톱 1:1 맞춤진료

건강검진센터 031-5001-182,4

재활센터 031-5501-220

응급실 031-5001-119(24시간 응급의학과 전문의 대기)

대표 031-5001-114 ※토요일은 오전진료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병원  
근로복지공단 안산산재병원



# 하늘 다리

January+February 1+2 2014 Vol.40  
Bimonthly Magazine of Ansan Cultural Foundation



안산문화재단  
ART-CULTURAL ENERGY

# 하늘다리

안산문화재단 감성문화지

Ansan Cultural Foundation Magazine

2014. 1+2 vol.40

2014 1·2월호(통권 제40호) · 비매품

발행인 김철민

편집인 김인숙

발행처 (재)안산문화재단(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12)

전화 080.481.4000

팩스 031.481.4021

기획 기획홍보부

편집 및 디자인 (주)이안커뮤니케이션(02.850.3160~79)

출력 및 인쇄 명일인쇄

[www.ansanart.com](http://www.ansanart.com)

「하늘다리」는 무지개를 뜻하는 말로 문화예술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자하는 안산문화재단의 의지입니다.



## Cover Story

15세기 프랑스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을 배경으로 이방인이었던 짐시 여인을 사랑한 콰추 과지모도의 슬픈 사랑 이야기. 빅토르 위고 원작의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가 4년 만에 한국 무대를 찾는다. 파워풀한 가창력과 연기력으로 호평 받고 있는 배우들의 열연으로 채워질 무대를 주목해 보자.



# Contents

## ASAC Essay

- 04 ASAC 비전 & 미션
- 06 포토에세이
- 08 1~2월 공연 캘린더

## ASAC Special

- 12 **Message** 안산문화재단 김인숙 대표이사 인터뷰
- 16 ASAC의 나아갈 길
- 18 창작음악극 <에릭 사티> 배우들의 새해 인사
- 20 창작음악극 <에릭 사티> 2013 대학로 공연

## ASAC Stage

- 24 창작뮤지컬 <윈터 호러 하우스>
- 26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

## ASAC Culture Trend

- 32 테마가 있는 미술 ㉔
- 38 테마가 있는 공연 ㉔
- 44 테마가 있는 음악 - 오페레타의 역사

## ASAC 문화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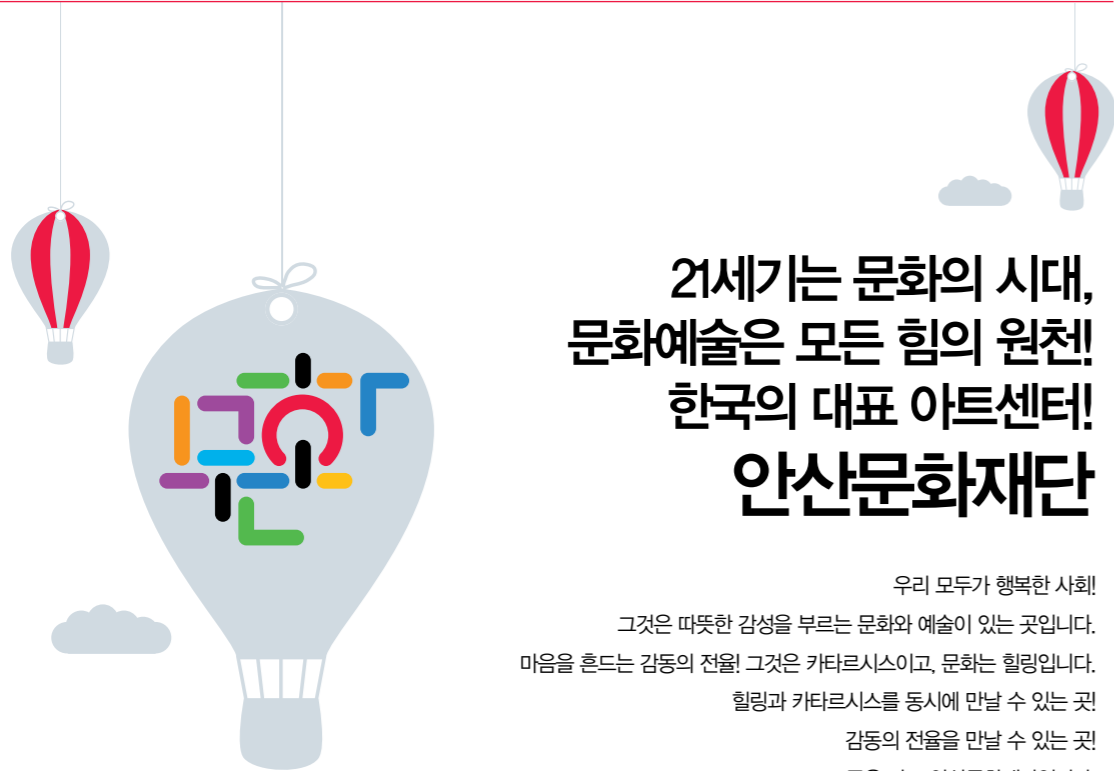
- 50 체험 전시 <브루미즈>
- 52 문화현장 - '안녕?! 오케스트라' 1년 성과 보고
- 54 문화탐방 - 청소년 극단 '고등어'
- 56 칼럼 - 음악치료 시리즈 ④

## ASAC News

- 62 단원미술관 전시
- 66 2014년 기획공연 프리뷰
- 72 독자코너 - 독자엽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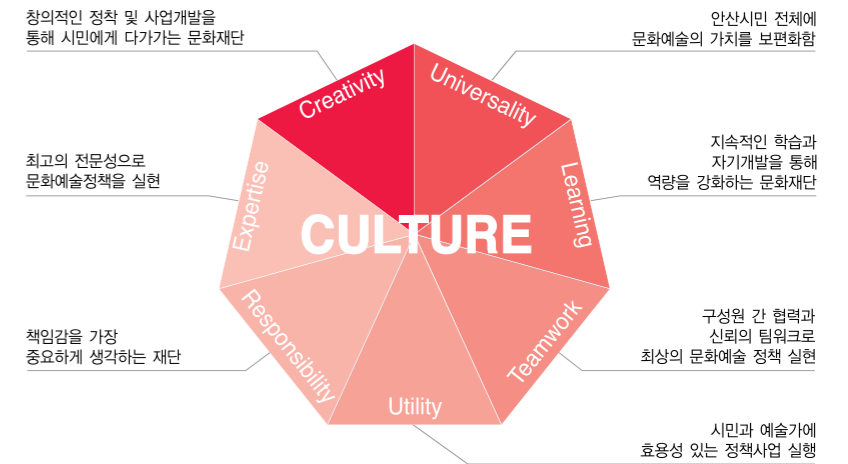
# 21세기는 문화의 시대, 문화예술은 모든 힘의 원천! 한국의 대표 아트센터! 안산문화재단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사회  
 그것은 따뜻한 감성을 부르는 문화와 예술이 있는 곳입니다.  
 마음을 흔드는 감동의 전율! 그것은 카타르시스이고, 문화는 힐링입니다.  
 힐링과 카타르시스를 동시에 만날 수 있는 곳!  
 감동의 전율을 만날 수 있는 곳!  
 그곳은 바로 안산문화재단입니다.  
 각종 공연과 오페라, 교향악, 뮤지컬, 음악회, 전시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품격을 드높여주는 첨단시설들!  
 안산의 문화예술을 아우르는 허브 역할을 하며  
 품격 있는 복합문화예술공간을 지향합니다.  
 시민의 문화·예술적 소양 함양을 통한  
 삶의 질 향상으로 삶의 가치와 품격을 높여드립니다.

## 01. 비전 & 미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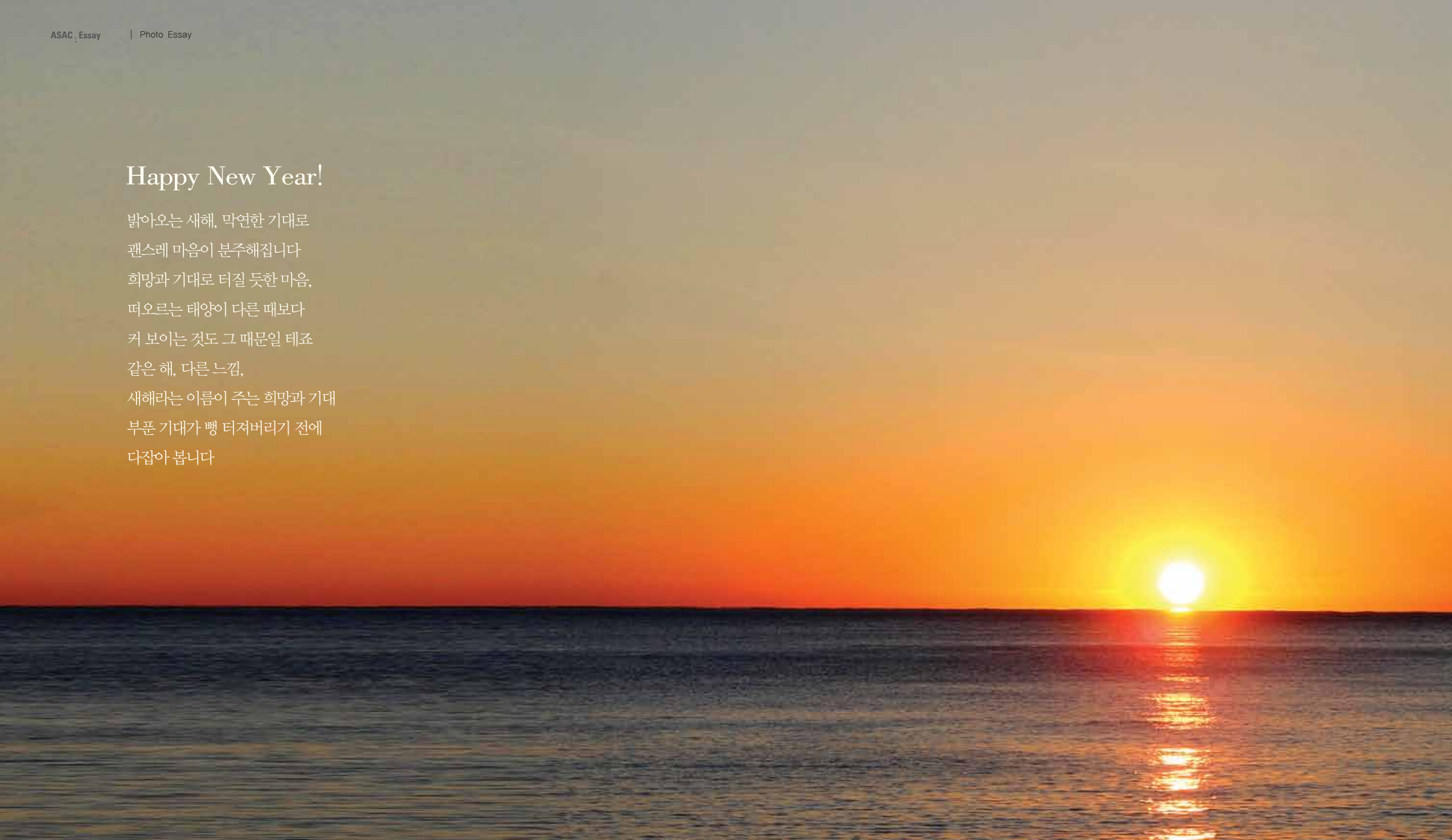


## 02. 핵심가치



## Happy New Year!

밝아오는 새해, 막연한 기대로  
괜스레 마음이 분주해집니다  
희망과 기대로 터질 듯한 마음,  
떠오르는 태양이 다른 때보다  
커 보이는 것도 그 때문일 테죠  
같은 해, 다른 느낌,  
새해라는 이름이 주는 희망과 기대  
부푼 기대가 뺨 터져버리기 전에  
다잡아 봅니다



# 01 JANUARY 2014

기 기획공연 대 대관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1	2	3	4
						정기 타악콘서트 <놀자> 18:00, 달맞이극장
5	6	7	8	9	10	11
	무대점검					전국학생 콩쿠르, 별무리극장
12	13	14	15	16	17	18
	무대점검			기 창작뮤지컬 <윈터 호러 하우스> 17:00, 20:00, 별무리극장 상공회의소 신년음악회 19:00, 해돋이극장	기 창작뮤지컬 <윈터 호러 하우스> 17:00, 20:00, 별무리극장	대 타악콘서트 19:00, 달맞이극장 한국음악신문사 전국학생 음악 콩쿠르, 별무리극장
19	20	21	22	23	24	25
					기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 20:00, 해돋이극장 킹스킴칭제 18:30, 달맞이극장	기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 14:00, 19:00, 해돋이극장 영어연극공연 14:00, 18:00, 별무리극장
			아이엘어학원 발표회 18:30, 별무리극장			
26	27	28	29	30	31	
기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 15:00, 해돋이극장 남윤지 제자연주회 15:00, 달맞이극장	무대점검	대 제2의 성전 14:00, 19:30, 달맞이극장			설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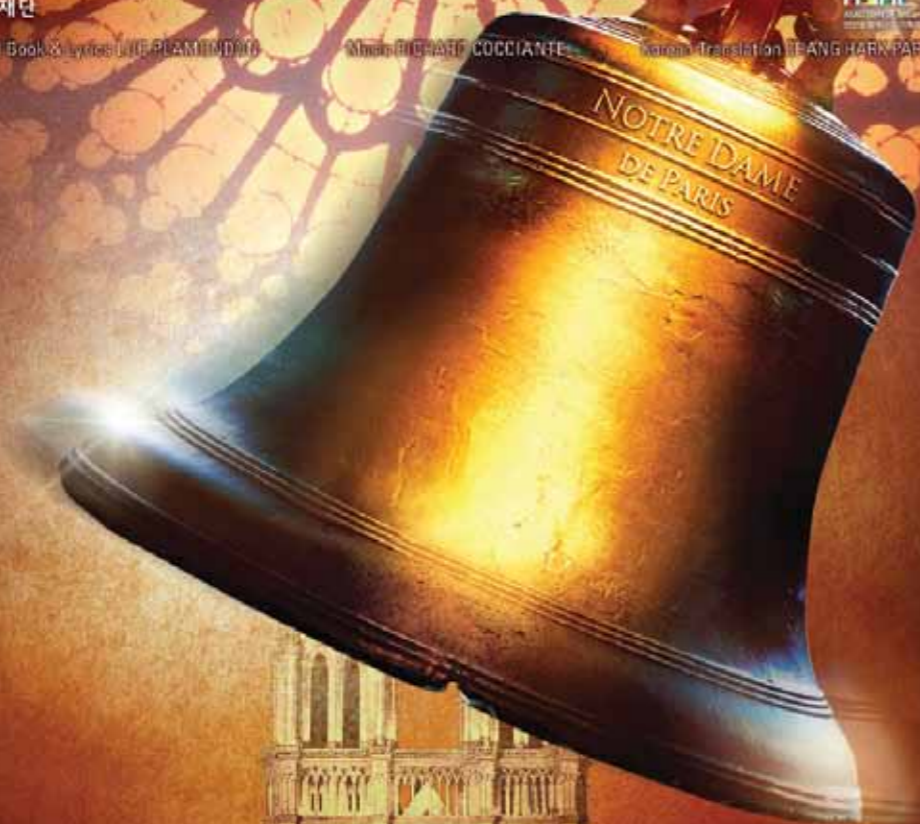
# 02 FEBRUARY 2014

기 기획공연 대 대관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1
2	3	4	5	6	7	8
						
				상반기 무대안전 점검 2.3-2.17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대 백설공주 11:00, 14:00, 16:00, 달맞이극장
				공동산음악학원 발표회 18:00, 별무리극장	이레 피아노 정기연주회 19:30, 별무리극장	김연자 15:00, 19:00, 해돋이극장
23	24	25	26	27	28	
대 백설공주 11:00, 14:00, 16:00, 달맞이극장 뉴줄리어드 발표회 15:00, 18:30, 별무리극장	무대점검					
						한송이 발레아카데미 19:30, 별무리극장

\* 공연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니 관람 전에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080-481-4000





프랑스 뮤지컬 돌풍의 중심!

# 노트르담드파리

NOTRE DAME DE PARIS  
By Special Arrangement with ENZO PRODUCTS

2014. 1. 24(금) ~ 1. 26(일) 금 8PM, 토 2PM / 7PM, 일 3PM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해돋이극장

출연 | 윤형렬, 홍광호, 유공주, 문혜빈, 마이클리, 전동석, 최민철, 민영기, 조휘, 문종원, 김성민, 박은석, 안솔지, 이정화

티켓 | R석11만원, S석 9만원, A석6만원, 날개석4만원

주최/주관 | 현대인산문화재단 문의 | 콜센터080-481-4000 / 인터파크 1544-1555



- 12 Message 안산문화재단 김인숙 대표이사 인터뷰
- 16 ASAC의 나아갈 길
- 18 창작음악극 <에릭 사티> 배우들의 새해 인사
- 20 창작음악극 <에릭 사티> 2013 대학로 공연



Main theme

## ASAC Special



2014년 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이 재단 출범 1주년과 전당 개관 10주년을 맞아 도약을 위한 힘찬 비상(飛上)을 준비하고 있다. 지역문화예술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 지난 2004년 개관한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은 올해가 10주년을 맞는 해이다. 개관 10년, 재단 출범 1년이라는 시점에서 안산문화재단 대표이사직을 꼼꼼히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김인숙 대표이사를 그의 집무실에서 만났다. 하지만 재단의 조직을 움직이고 운영하느라 늘 바쁜 스케줄로 안산의 문화예술 발전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김인숙 대표이사를 만나기 위해 인터뷰 시간을 잡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웠다.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관장직부터 3년 여간 전당 대내외 업무를 살피고 있는 김인숙 대표이사는 여장부로 통한다. 한국무용을 전공한 그이지만 가녀린 손동작에서 미세한 한국무용의 섬세한 정서를 표현할 때와는 다른 카리스마가 느껴진다. 무용전공자다운 섬세함은 조직을 운용하며 작은 일들까지 살피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또 김인숙 대표는 교육학으로 석사학위를, 예술경영으로 박사학위를 받는 등 오래 전부터 문화예술교육과 문화정책 등에 많은 관심을 갖고 준비, 현재 문화재단의 대표이사직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춘 인물이라는 평을 얻고 있다. 게다가 한국예술인총연합회 안산지회장을 맡은 경력은 문화와 예술, 방대한 조직을 거느리는 기본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

김인숙 대표이사에게 지난 2013년은 안산문화재단의 출범이었다. 이에 지난 1월 문화재단으로 출범한 안산문화재단은 기존 안산문화예술의전당과 지난해 4월 새롭게 개관한 단원미술관의 관리 운영 및 안산시 문화예술 활성화와 발전을 위한 모든 일들을 책임진다. 재단 출범을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수준 높고 행복한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힘차게 노를 젓고 있다.

#### ‘안녕! 오케스트라’ 등 문화사업 활발

“안산문화재단은 공적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참여 확대를 위한 ‘문화 바우처’를 비롯해, ‘문화나눔미’, ‘해피존 티켓나눔’ 등의 적극적인 사업을 위해서도 노력해 나가고 있는 한편 ‘청소년국제교류’, ‘안녕!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힘찬 비상(飛上)

## 가장 아름다운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오케스트라, '시민극단', '문화공동체' 등의 다양한 문화 사업을 기획·운영, 단순한 공연장으로서의 기능을 넘어 우리 시 문화예술에 관한 모든 정책 개발과 함께 기획 및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개관으로 문화의 불모지 안산에 문화예술이라는 텃밭이 마련되고 그 위에 씨앗이 뿌려졌다. 그리고 출범 1주년을 맞은 안산문화재단은 문화예술 공연장의 외연을 확대해 문화예술의 창작 보급 및 문화예술 활동지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및 사업 진행,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전통문화예술 전승과 문화유산 발굴·보존 등 전문적인 문화예술사업 등을 선두에서 이끌어 나가는 기관으로 '문화예술의 메카'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이제 안산을 넘어 전국적으로 지역축제의 위상을 높여가고 있는 안산국제거리극축제의 기획과 운영, 단원미술회의 기획과 운영, 문화공연 콘텐츠 개발, 문화예술 활성화 등

을 위한 정책개발과 사업시행을 위해서도 더욱 활발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재단 출범 후 여러 문화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먼저 동네·마을·장터·공원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 속의 예술 추진 및 문화를 매개로 마을 공동체를 복원하고자 하는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형성사업이 있습니다. 또 안산지역에 있는 서울예술대학과 연계해 지역주민과 전문예술인들이 함께하는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고 아마추어 예술단체 지원·육성, 지역 문화 발전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예술동아리 활성화 사업과 지역 커뮤니티와의 소통과 교감을 통해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촉진하고자 하는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도 재단의 주요사업이죠.”

김인숙 대표는 재단의 사업을 설명하는 동안 눈빛이 더욱 빛났다. 그만큼 열정이 넘치고 재단 발전에 대한 고민이 많다는 이야기일 것이다.

더불어 그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음악교육 '엘 시스템(El Sistema)'을 지향하는 사업인 '안녕?! 오케스트라' 프로젝트와 경기도 10대 축제로 선정된 '안산국제거리극축제', 한여름에 진행되는 '여름미오 페스티벌'이 많은 시민들에게 문화에 대한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시원한 샘물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 안산 시민의 행복 위해 노력

안산문화재단은 모든 시민이 문화로 행복해지고 삶의 여유와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꿈이다. 그리고 아름다운 문화예술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있다.

안산문화재단 출범은 시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쉽게 제공할 수 있게 됐고 맞춤형 공연기획 프로그램 개발로 누구나 공감하고 함께 호흡해 나가는 문화예술 생태계를 만들고 있다는 평을 받았다.

“문화예술은 우리의 삶을 보다 행복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 역할을 합니다. 이에 안산문화재단의 목표는 우리 시의 문



화예술 발전은 물론 시민들의 행복한 문화예술 향유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재단은 보다 아름답고 행복한 안산시의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을 위한 디딤돌이 되겠노라고 약속드리며, 문화예술로 행복한 지역사회를 위해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 나가겠습니다.”

김인숙 대표는 안산문화재단이 최고의 문화재단이 될 수 있도록 또 문화예술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시민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말로 마지막 인사를 대신했다.

안산시 문화예술 발전을 향해 최선을 다해 뛰고 있는 예술인, 김인숙 대표의 바뀌지 않는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는 '행복한 문화예술 생태계를 꿈꾸며...'이다. 안산문화재단 대표이사의 문화예술에 대한 사랑의 에너지를 읽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닐 수 없다. 행복이 가득한 2014년을 위해 김인숙 대표이사의 예술을 향한 아름다운 행보가 이어지길 기대한다.

취재. 박공주





안산문화재단의 새로운 역할과 과제

# 시민과 함께, 행복을 만들어가는 안산문화재단

우리 안산문화재단은 지난 5개월간 '안산문화재단 중·단기 발전 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최근 그 결과를 도출했다. 이는 2013년 1월 1일 '안산문화재단' 출범에 따라 내부적으로는 조직 이행을 스스로 가능해 보고 이에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외부의 시각을 덧붙여 명실상부한 문화재단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한 총체적인 점검과 역할 설정에 그 목적이 있었다.

연구기간 동안 재단 임직원은 수차례 회의와 논의를 통해 재단 출범에서부터 2013년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내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연구진은 전문가와 민관 관계자 인터뷰, 내외부 환경분석을 통해 종합적인 최종 연구 결과를 이끌어 냈다.

최종 결과를 살펴보면 안산문화재단의 임직원들은 '문화재단'으로 조직 변화 후 업무 만족도와 역할에 대한 자부심, 긍지가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조직 변화에 대한 준비가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이 부분에 대한 보완과 더불어 2014년도의 성공적인 문화사업 추진을 위한 전략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번 연구는 안산시와 문화재단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예술정책의 추이, 안산시 문화환경 기반, 조직문화 등의 내외부 환경분석에 심혈을 기울였다. 처음으로 이루어진 이번 연구를 통해 급변하는 문화예술 환경에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지 안산문화재단의 입장을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중 문화정책의 환경 및 트렌드 변화를 분석하고 이를 재단에 적용해 새로운 미션과 비전 스테이트먼트, 전략과제를 어떻게 낼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였다. 이를 위해 재단 직원들은 "미래, 공동체의 행복과 통합을 위한 독창적인 문화예술을 지원하고 시민 향유를 최고화하는 문화재단"이라는 비전을 설정했다. 이러한 비전 설정은 안산문화재단이 존재하기 위한 이유, 그 존재의 책무를 가치 있게 실현하기 위한 안산문화재단의 미래 상(象)이기도 하다.

문화재단이 구현하고자 하는 자산인 '문화, 예술'이라는 틀걸이가 공동체의 행복과 통합을 위해 어떻게 이바지할

## C.U.L.T.U.R.E makes Happy

수 있는지 생각해야 한다. 예술이 사회에 기여한다는 신념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시민 모두가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헌신의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러한 비전 설정에 따라 재단의 경영이념과 사업 내용 등을 고려해 안산문화재단이 지향해야 할 핵심가치를 'CULTURE'로 선정했다. 이는 재단 사업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통해 문화예술의 가치를 제공하겠다는 의미이다.

### 안산문화재단이 지향하는 7가지 핵심가치

- **Creativity** 창의적인 정책 및 사업개발을 통해 시민에게 다가가는 문화재단
- **Universality** 안산시민 전체에게 문화예술의 가치를 보편화함
- **Learning** 지속적인 학습과 자기개발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는 문화재단
- **Teamwork** 구성원 간 협력과 신뢰의 팀워크로 최상의 문화예술 정책 실현
- **Utility** 시민과 예술가에게 효용성 있는 정책사업 실행
- **Responsibility** 책임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재단
- **Expertise** 최고의 전문성으로 문화예술정책을 실현

이러한 7가지의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4대 발전 전략과 16가지 전략과제를 도출했다. 안산문화재단이 발전하기 위한 4가지 전략은 '미래기반 확충', '문화예술·안산시민 향유제고', '문화예술 지원', '운영기반 탄실화'이다. 4가지 전략 실행을 위해 재단은 우선 재단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인프라스트럭처를 조성해

야 한다. 또 안산시의 특성을 살린 정책의제 개발과 정보자료 축적, 문화커버넌스 실현을 위한 네트워크 조성 및 논의 구조 활성화, 국제화 행사의 브랜드화를 위해 집중 연구할 것이다. 또 문화예술의 수요자인 시민 관점에서 문화재단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인 안산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다원화 및 대상 별 맞춤형 프로그램 시행,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 및 예술동아리, 안산국제거리극축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더불어 문화예술 공급자 및 고객의 관점에서 창의자인 문화예술인과 문화예술 공간에 대한 구체적 미션을 정립하고 이를 위해서는 지역문화예술인 및 단체 지원 확대, 지역문화 거점 활성화 및 시민의 예술창조 참여 지원, 수준 높은 예술작품을 제공하는 아트센터로의 전당 운영, 단원미술관 위상제고에 힘쓸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조직운영과 확대발전을 위해서는 그 기반조성을 튼튼히 하고 실효성 있게 만들기 위해서 사업 환수율 제고 및 재정안정·다각화, 직원역량 강화 및 우수인력 확보, 직원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평가 보상시스템 구축, 성과와 협력 중심의 조직문화 조성 등을 추진해나갈 것이다.

연구의 결과물이 단지 이론에 그치지 않고 실제 재단사업에 적용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갈 것이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설정한 미션과 비전을 달성해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술이 지닌 진정한 가치가 발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안산시민 모두가 문화혜택을 고루 누리며 행복해질 수 있도록 재단 임직원들의 2014년은 더욱 바빠질 것이다.

기획홍보부

안산문화재단이 제작한  
창작음악극 <에릭 사티>

# 그들이 전하는 2014년 새해인사

2013년 문예회관 레퍼토리 제작개발 지원작으로 선정된 <에릭 사티>는 안산문화재단이 지역 공연장으로서 대관이나 기획공연을 주최하는 것을 넘어 우수 창작콘텐츠 개발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선보인 첫 번째 작품이라는 것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안산문화재단이 지난 2011년에 자체 제작한 창작음악극 <에릭 사티>가 지난 2013년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무대에서 공연됐다. 공연 콘텐츠의 지속적인 개발과 실력 있는 예술가·제작진들과의 협업과 교류를 이어가기 위한 시도로 마련됐던 지난 대학로공연에서 출연자들의 새해 인사가 전달됐다. 2014년에는 한 발 더 나아가고, 도약하길 바라며 <에릭 사티> 출연진들의 덕담을 전해 본다.



안산문화예술의 전당 여~러분,

<에릭 사티>같은 좋은 작품을 제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에릭 사티>도 광명하게 해주세요!

새해에도 좋은 일만 계속되기를 기원합니다.



음악극 <에릭 사티> 작가

김민정

2014년도 행복하세요!

김영숙

2013. 11. 30

김영숙

2014년  
가슴으로 !!  
안산문화예술의 전당 모든분들...  
모든작품...  
대박 나시길...  
정호영  
- 에릭사티. 찬 -

김민정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정호영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게 일하시길 기원합니다.  
S.V.O.

김민정

2013. 11. 30  
안산문화재단 가족 여러분!  
안산문화재단 행복하세요!  
모든 분께 건넬 인사를  
드립니다.

'2014' 김민정

가정에서 평안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김민정

2013. 11. 30  
바다 김민정

안산 문화 재단 ...

신년어 좋은 기원!

기득 성지서원  
기원합니다.

김민정

정호영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2013. 11. 30. 정호영

안산문화예술의 전당!  
새해에도 모든 것들 많이 만드소서~  
Happy New Year!  
음악극 <에릭 사티> 모든  
<에릭 사티>가  
행복하게  
만들게요.

김민정

김민정

안산 문화재단 행복하세요~  
김민정





19세기 천재 작곡가 에릭 사티의 삶 그린 음악극

# 더욱 다채로워진 무대와 기막힌 연출의 조화 돋보여

안산문화재단이 제작한 창작음악극 <에릭 사티>가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에서 공연을 가졌다(11월 22일~12월 1일). 이번 대학로 공연은 사티의 음악이 담고 있는 서정성을 기본으로, 그의 도전을 보여주며 2011년 초연에서 볼 수 없었던 다채로운 색깔과 이미지들이 보강된 무대를 선사했다.

19세기 인정받지 못한 천재작곡가 에릭 사티의 드라마틱한 인생을 음악극으로 풀어낸 <에릭 사티>는 2011년 초연 당시 선과 빛이 교차하는 흑백의 꿈 같은 무대로 꾸며졌다. 미니멀한 사티의 음악 세계를 표현하면서, 그가 느꼈을 외로움과 창작의 고통을 표현하는 서정적인 장치와 흑백의 공간 속에 빛나던 조명은 사티의 무의식을 자극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

미니멀한 무대에서 동화 같은 무대로  
2013년 창작음악극 <에릭 사티>는 그의 음악이 담고 있는 서정성을 기본으로, 그의 도전을 보여준다. 공연은 현재의 인물인 영화감독 지망생 '태한'의 시간여행을 통해 19세기의 사티를 만나 그의 비범한 예술세계와 삶을 통해 자신이 갈망하는 예술적 진정성을 찾게 되는 과정을 그린다. 사티가 미래에서 온 태한을 만나면서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는 여정을 함께한다. 하지만 창작의 고통 속에서 기쁨도 함께 느끼는 길이었다.

"파리의 에펠 탑은 당시 흉물이라 평가 받았지만 지금은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했다. 대세를 강요하는 흐름 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고 남과 다른 나만의 것을 찾아가는 에릭 사티와 태한의 여정은 오늘을 살아가는 관객에게도 공감과 감동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연출 박혜선

무엇보다 이번 공연은 초연에서 볼 수 없었던 다채로운 색과 이미지로 관객들의 눈을 즐겁게 했다. 그림자 놀이, 자이언트 퍼펫, 마임, 발레 등은 자신의 음악 세계를 구축하기 위해 다채로운 것들과 다양한 방법으로 접목해왔던 사티의 실험정신을 보여주었다. 또한, 1917년 프랑스 파리 샤틀레극장에서 초연되었던 발레극 <파라드>(작/장콕도, 작곡/에릭 사티, 연출/세르게이 디아길레프, 무대/파블로 피카소)를 오마주한 장면은 시대를 앞서 간 에릭 사티의 예술 세계를 선명히 보여주었다.



무대 뒤의 숨은 공신, 라이브 오케스트라  
 신경미 음악감독은 “2대의 피아노와 바이올린, 클라리넷, 콘트라 베이스, 타악기, 아코디언 등의 악기 구성으로 미니멀한 에릭 사티 원곡의 느낌을 살리면서 실내악 느낌을 강조했다”고 하며 19세기 프랑스의 분위기를 관객들에게 전달하고자 노력했다. 에릭 사티의 편안하면서 신비로운 음악들 ‘짐노페디(Gymnopedies)’, ‘그노시엔 (Gnossiennes)’, ‘쥬뜨부(Je Te Veux)’, ‘뵉사시옹(Vexations)’ 등과 정민선 작곡가의 창작음악으로 이루어진 음악은 관객들을 19세기 예술의 거리 몽마르트와 2세기를 넘나들며 관객들을 환상의 세계로 이끄는 데 성공했다.

관객을 감동시킨 100분간의 기막힌 연출  
 박혜선 연출은 극 전체에 음악을 배경으로 배치하면서 극의 분위기와 인물의 감성을 대사와 함께 음악으로 전달하는 것을 주요 장치로 사용했다. 이는 그의 음악에 대한 열정과 후세에 더 빛을 발한 미래지향적 예술가 정신을 부각시키며 100분간 관객들을 사로잡는 데 성공했다.

또한, 서(SEO)발레단과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만든 ‘파라드’ 장면은 오리지널 작품 그대로의 아방가르드하고 다다이즘적인 분위기를 그대로 표현하여 관객과 언론으로부터 돌보인 연출력이라는 호평을 받았다.

공연기획부

## PRESS REVIEW

새로움과 신선함을 찾는 관객들에게는 눈길을 끌 만한 실험적인 작품  
 - 한겨레

던져지는 이야기를 한 입 두 입 넘길수록 뒷맛이 부담 없이 아릿하다. 1시간 40분 뒤 입안에 남은 것은 뜻밖의 소박한 맛집을 찾아낸 청량감이었다!  
 - 동아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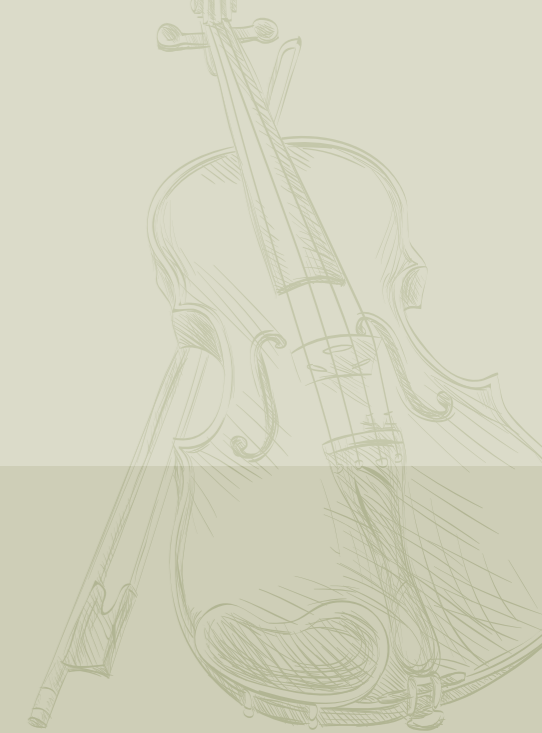
노래와 춤, 대형 퍼핏꼭두각시 인형을 활용한 연출, 발레극 등 다양한 무대 언어가 짜임새 있게 조합돼 사티의 삶을 재구성한다  
 - 한국경제

01



24 창작뮤지컬 <윈터 호러 하우스>  
 26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

Main theme  
 ASAC Stage





청소년 극단 '고등어'의 새해 인사

# <윈터 호러 하우스>,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청소년의 눈으로 전달하는 청소년 극단 '고등어'의 참신한 시선이 올해는 어떤 모습으로 관객들을 찾아가게 될까? 2014년 청마의 해를 맞아 청소년 극단 '고등어'가 새 무대를 준비했다. 창작뮤지컬 <윈터 호러 하우스>로 관객들을 맞는다.

안산시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생활과 다양한 진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만들어진 청소년 극단 '고등어'가 2012년 가을에 창단됐다. 창단 후 청소년들의 대화와 공감의 창구를 자처하며 국내는 물론 해외의 연극 무대에 작품을 올리기도 했다.

2013년 오키나와 나카노미치공민관 무대에서 황순원 작가의 <소나기>를 마임극으로 재구성한 작품을 통해 우리 문학의 우수성과 우리 청소년들의 예술적 끼와 재능을 뽐낸 바 있고 국내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진행 중이다.

2014년 새해 첫 작품으로 창작뮤지컬 <윈터 호러 하우스>을 선보인다. 이 이야기는 청소년들의 이야기로 유쾌하고 재미있는 방식으로 풀어낸다.

그동안 왕따, 학교폭력 등 청소년들의 우울한 이야기로 구성되었던 청소년 연극과는 달리 청소년들의 꿈과 고민들을 바탕으로 구성된다. 이번 뮤지컬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고민이 무엇인지 함께 느끼며 그들의 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 창작뮤지컬 <윈터 호러 하우스>는?

수능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을 배경으로 한다. 고등학교 3학년 여름, 지금은 수능공부에 전념하고 있는 반 아이들에게 귀신의 집 만들기를 제안한다. 반년 후면 떠날 이 학교에서 멋진 추억을 만들어보자는 것. 아이들은 수능공부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망설이지만 다름의 열정적인 설득에 의기투합한다. 하지만 여름 귀신의 집은 처참하게 실패하고 마는데……. 수능이 끝난 겨울, 아이들은 죽은 다름이를 추모하기 위해 다시 한번 귀신의 집을 만들기로 한다. 과연 겨울 귀신의 집은 성공할 수 있을까?

문화사업부



### 공연안내

- 날짜 : 2014년 1월 16일(목) ~ 17일(금) / 오후 5시, 8시
- 공연장 :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별무리극장
- 티켓 : 1,000원
- 출연 : 교연정, 김연주, 강병훈, 박덕희, 오영관, 선정원, 임다희, 한은비, 박승환, 김홍기, 임소영, 윤해운, 윤여준, 문지영, 김지유, 정성민, 김형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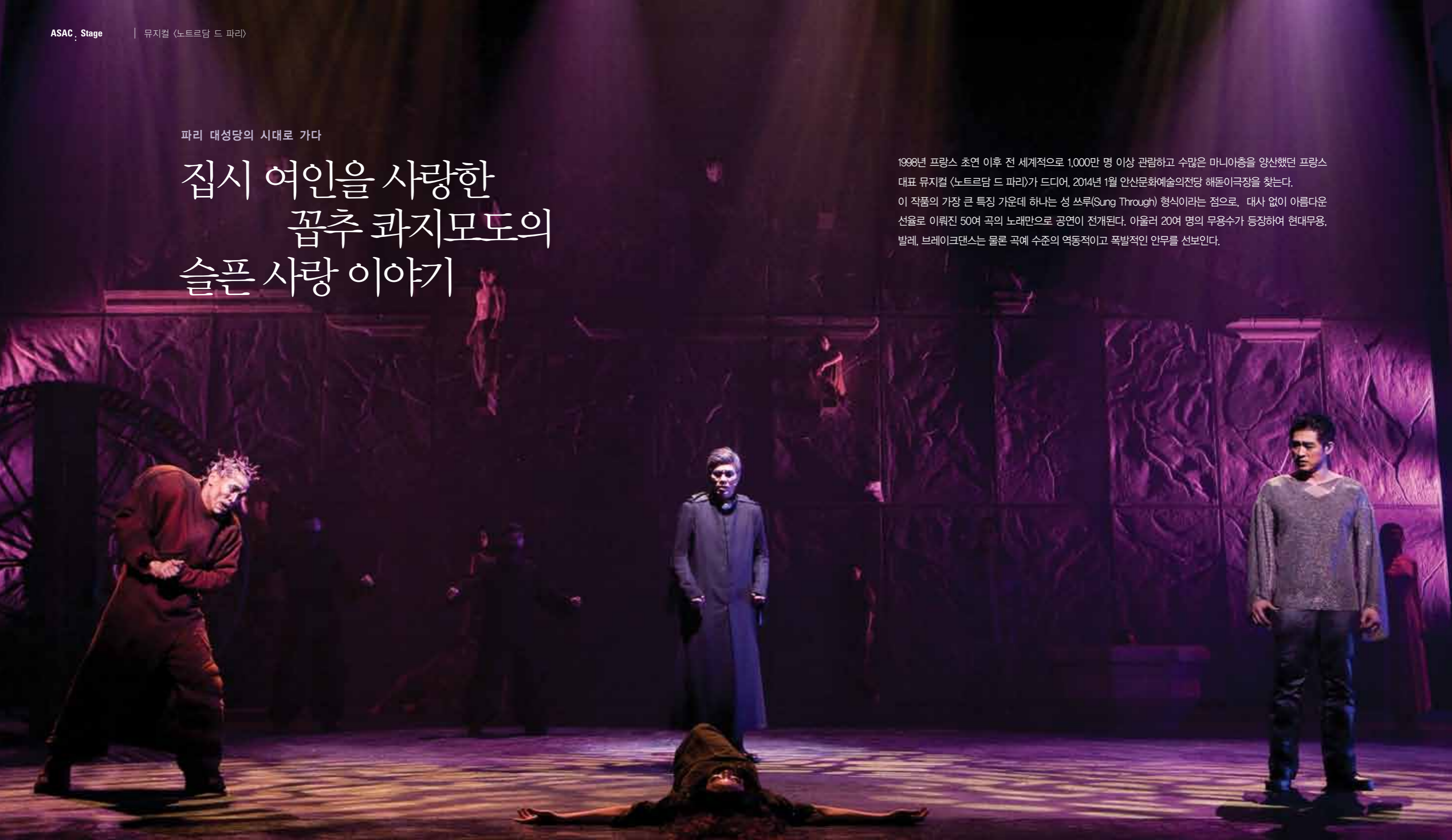


파리 대성당의 시대로 가다

# 집시 여인을 사랑한 꼬추 콰지모도의 슬픈 사랑 이야기

1998년 프랑스 초연 이후 전 세계적으로 1,000만 명 이상 관람하고 수많은 마니아층을 양산했던 프랑스 대표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가 드디어, 2014년 1월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해돋이극장을 찾는다.

이 작품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성 쓰루(Sung Through) 형식이라는 점으로, 대사 없이 아름다운 선율로 이뤄진 50여 곡의 노래만으로 공연이 전개된다. 아울러 20여 명의 무용수가 등장하여 현대무용, 발레, 브레이크댄스는 물론 곡에 수준의 역동적이고 폭발적인 안무를 선보인다.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는 15세기 프랑스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을 배경으로 이방인이었던 집시 여인을 사랑한 꼬추 콰지모도의 슬픈 사랑 이야기다. 빅토르 위고(Victor Hugo)의 동명 작품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는 프랑스 초연 1년 전에 미리 발매된 OST앨범이 프랑스 음반차트에서 17주간 1위, 에스메랄다를 향한 세 남자의 엇갈린 감정을 노래하는 'Belle'는 44주간 1위라는 대기록을 달성하며 1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프랑스의 대표적인 뮤지컬로 일컬어지고 있으며 감성을 뒤흔드는 매혹적인 선율의 음악으로 현재까지 1,200만 장의 경이적인 OST 판매고를 기록하고 있다. 이 밖에도 공중에 매달린 노트르담 대성당의 대형 종과 움직이는 석상 모형 등 예술성과 스케일 면에서도 압도적인 무대를 자랑한다.

**4년 만의 한국 공연, 국내 최정상 뮤지컬 배우 총 집결**

4년 만에 돌아오는 한국어 라이선스 공연이니만큼 최강의 캐

스팅으로 귀환하는 이번 무대는 국내 최정상 뮤지컬 배우들이 총 집결하였다.

<노트르담 드 파리>의 주인공이자 집시 여인 '에스메랄다'를 향한 헌신적이고 안타까운 사랑을 선보이는 꼬추 종지기 '콰지모도' 역은 홍광호와 윤형렬이 맡는다. <지킬앤하이드>, <오페라의 유령>, <맨오브라만차> 등 이미 세계적인 뮤지컬 작품의 주연을 꿰차며 환상적인 가창력과 연기를 선보인 홍광호가 이번 <노트르담 드 파리>의 주연을 맡게 되면서 명실상부 국내 최고의 뮤지컬 배우다운, 격이 다른 무대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홍광호는 지난해 4월 방영된 MBC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의 뮤지컬 특집 '무한상사'를 통해 알려졌다, 최근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단독 콘서트 '홍서트'를 개최해 티켓 오픈 당일 전석을 매진시키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홍광호와 더불어 '콰지모도' 역을 맡은 윤형렬은 2007년 국내 초연 공연 당시, '콰지모도' 역으로 데뷔해 '콰지모도'를 맡기 위한 목소리라는 찬사를 받으며 일약



*Notre Dame de Paris*

공연안내

- 날짜 : 2014년 1월 24일(금) ~ 1월 26일(일) 금요일 오후 8시 / 토요일 오후 2시, 7시 / 일요일 오후 3시
- 장소 :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해돋이극장
- 출연 : 홍광호, 윤형렬, 문혜원, 윤공주, 마이클리, 전동석, 민영기, 최민철, 조휘, 문중원, 박은석, 김성민, 이정화, 안솔지



스타덤에 올랐고, 지난해 군 제대 후 뮤지컬 <두 도시 이야기>, KBS 예능프로그램 <불후의 명곡> 등 무대와 브라운관을 오가며 활발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4년 만에 다시 올라오는 한국어 공연에서 초연 멤버다운 관록과 한층 더 깊어진 연기력이 기대된다.

파워풀한 가창력과 폭넓은 연기로 관객을 사로잡다

과지모도의 마음을 사로잡은 아름다운 집시 여인, '에스메랄다' 역에는 윤공주와 문혜원이 더블 캐스팅되었다. '에스메랄다'로 분한 윤공주는 파워풀하고 안정적인 가창력으로 뮤지컬 <몬테크리스토>, <시카고>, <맨오브라만차> 등 굵직한 대작의 주연에 설 새 없이 러브콜을 받고 있다. 폭 넓은 연기 스펙트럼과 변화무쌍한 매력으로 자유로운 영혼의 '에스메랄다'를 선보일 예정이다. 한국어 초연 당시 에스메랄다로 활약해 많은 사랑을 받았던 윤공주와는 또 다른 매혹적인 캐릭터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화자이자 <노트르담 드 파리>의 대표 곡 '대성당들의 시대로 잘 알려진 시인 '그랭그와르' 역에는 현재 한일 양국을 오가며 인기를 모으고 있는 뮤지컬 스타 전동석이 맡는다.

이외에도 주요 배역으로 에스메랄다에 대한 강렬한 욕망과 집착으로 파멸의 길을 걷게 되는 신부 '프롤로' 역에는 민영기와 최민철이, '에스메랄다'의 보호자이자 집시 우두머리의 지도자 '클로팽'은 문중원과 조휘가, 에스메랄다가 사랑하는 매력적인 근위대장 '페뷔스'는 김성민과 박은석이, 그의 약혼녀 '플뢰르 드 리스' 역은 신예 이정화와 안솔지가 맡는다.

국내 최정상 뮤지컬 배우들이 한 작품에서 집결한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는 초호화 캐스팅을 자랑하며 오리지널을 뛰어넘는 뜨거운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공연기획부

02

- 32 테마가 있는 미술 - 그림 속 신화이야기 ㉔
- 38 테마가 있는 공연 - 명작으로 읽는 세계 연극사 ㉔
- 44 테마가 있는 음악 - 오페레타의 역사



Main Theme

ASAC Culture Trend





그림1. 보티첼리, 《프리마베라》, 1477년경, 우피치미술관 소장

그림 속 신화 이야기 @

# 겨울이 가고 봄이 찾아오듯이 산드로 보티첼리의 《프리마베라》

미와 사랑의 여신 비너스의 정원에 봄이 찾아왔다. 삼미신은 기쁨 춤을 추고 서풍의 신 제피로스나 그의 연인 클로리스는 봄과 함께 사랑이 시작됨을, 생동하는 삶이 시작됨을 알리듯 날아들고 있다. 초기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산드로 보티첼리(Sandro Botticelli)가 그린 《프리마베라》의 장면이다(그림1).



그림2. 루벤스, 《파리스의 심판》, 1632-33년 런던 내셔널갤러리 소장

### 프리마베라, 아름다운 봄날의 풍경

‘프리마베라’는 이탈리아어로 봄을 의미한다. 비너스는 일반적으로 그녀가 탄생한 4월의 상징으로 여겨지니, 그림 또한 4월의 피렌체 풍경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그림 속에는 모두 9명의 인물이 등장한다. 그림의 정중앙에 선 여인이 미와 사랑의 여신인 비너스이고, 그녀의 머리 위로 아들인 에로스가 눈을 가린 채 하늘을 날며 화살을 당기고 있다. 아름다운 봄날의 정원에서 사랑의 화살은 누구를 향한 것일까. 비너스의 왼편에는 동일한 포즈로 손을 맞잡은 삼미신이 등장한다. 아마도 이들 중 하나가 에로스 화살의 목표물인 듯하다. 대상이 누구든 그녀들은 흔쾌히 사랑의 시작을 맞을 참이다. 가장 왼쪽에서 날개가 달린 신발을 신고 두 마리 뱀이 휘감은 지팡이로 구름을 흩뜨리고 있는 이는 제우스의 심부름꾼이자 5월의 신인 헤르메스이다. 헤르메스는 상인들의 수호성인으로 상업 도시인 피렌체에서 가장 추앙받는 신이었다. 그림의 오른쪽으로는 서풍의 신 제피로스의 모습이 보인다. 그는 들뜬 상태에서 놀던 요정 클로리스에게 반해 그녀를 납치해서 결혼한다. 제피로스의 접근에 놀란 클로리스의 입에서 비명 대신 장미꽃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클로리스가 꽃

의 여신인 플로라로 변신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제피로스를 만나 클로리스는 요정에서 신의 반열로 올라선다. 사랑의 힘은 이렇듯 발전적인 변화를 도모한다. 적어도 보티첼리의 그림 속에서는 말이다.

### 그리스 신화의 중심에 있는 비너스

비너스의 그리스식 명칭은 아프로디테이다. 신화에 따르면 티탄족인 크로노스가 아버지인 천상의 신 우라노스의 성기를 잘라 바다에 던지자, 바닷물에 닿은 핏덩어리에서 거품이 일며 탄생한 이가 미의 여신 비너스이다. 가장 추한 존재로부터 가장 아름다운 이가 태어났으니, 태생부터 아이러니하다. 미와 사랑의 여신으로 모든 이들에게 추앙받았지만 동시에 많은 신화 속 일화에서 갈등의 원인으로 등장함으로써 이중적인 이미지를 지닌 캐릭터이기도 하다. 가장 대표적인 일화가 트로이 전쟁의 원인인 ‘파리스의 심판’이다. 이 일화에서 비너스는 자신의 아름다움과 사랑에 대한 절대적 권력을 이용해 헤라와 아테나를 이기고 파리스의 환심을 산다. 바로크 화가인 루벤스가 그린 《파리스의 심판》(그림2)은 아들 큐피트를 대동하고 나선 비너스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림3. 보티첼리, 《비너스와 마르스》, 1465년경, 런던 내셔널갤러리 소장

최고의 여신이 누구인지 선택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의 앞에 세 여신이 나타났다. 화면 가장 오른쪽에 공작새와 함께 선 헤라는 세계의 주권과 명예를, 왼편에서 투구와 방패를 지니고 나타난 아테네는 전쟁에서의 승리와 지혜를 약속한 반면, 가운데 선 미의 여신 비너스는 인간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아내로 주겠노라고 약속한다. 결국 파리스는 비너스의 손을 들어주지만, 파리스의 짝으로 약속된 헬레네는 이미 스파르타의 왕 메넬라오스의 부인이었던 까닭에 트로이 전쟁의 원인이 되고 만다. 비너스의 경솔함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비너스의 사랑편력 또한 유명하다. 그녀는 절름발이에다 추한 용모를 지녔으나 근면한 성품을 지닌 대장간의 신 헤파이스토스와 결혼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군신 마르스와 정을 통하여 아들 큐피트를 낳는다(그림3). 신화에 따르면 그녀의 남성편력은 주신 바쿠스로부터 미소년 아도니스, 목동 안키세스에 이르기까지 신과 인간을 구분하지 않았다. 그러나 애초에 사랑의 여신인 그녀에게 인간의 도덕적 기준을 들이댈 수는 없다. 비너스에게 에로스, 즉 사랑은 생명이요,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이로써 그녀는 나무에 물이 오르고 꽃봉오리가 솟아오르는 생명의 계절인 봄의 상징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 비너스를 사랑한 화가 보티첼리

〈프라임베라〉는 보티첼리가 고대 신화를 주제로 그린 첫 번째 그림으로 알려져 있다. 보티첼리는 왜 비너스를 빌어 봄의 풍경을 가장 먼저 그렸을까. 사실 이 그림은 1475년 기마경연대회에서 우승한 줄리아노 데 메디치와 그의 연인 시모네스 베스푸치의 사랑을 축복한 시인 안젤로 폴리치아노의 시 ‘라 지오스트라’를 형상화한 것이라고 한다. 즉 주문자 메디치 가문의 새로운 커플을 축복하기 위한 그림인 셈이다. 그러나 보티첼리는 ‘사랑’이라는 주제를 프림베라, 즉 봄과 연관시키는 데 더 집중한 듯 보인다. 보티첼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랑이 찾아오는 시기가 바로 봄이라는 사실이다.

보티첼리의 다른 작품 〈비너스의 탄생〉 역시 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그림4). 그림은 바다의 물거품에서 태어난 미의 여신 비너스가 키테라섬에 도착하는 장면을 그린 것이다. 조가비를 타고 있는 비너스는 오른손으로 가슴을 가리고 왼손과 머리카락으로 부끄러운 듯 몸의 아랫부분을 가리고 있다. 이러한 자세를 정숙한 비너스라는 의미로 ‘비너스 푸디카’라고 부른다. 그림의 왼편에는 서풍의 신 제피로스가 클로리스에게 안긴 채 입으로 바람을 불어 비너스를 해변으로

그림4. 보티첼리, 《비너스의 탄생》, 1486년경, 우피치미술관 소장





인도하고 있다. 오른쪽에는 비너스를 수행하는 계절의 여신 호라이가 비너스를 맞으며 옷을 펼쳐들고 있다. 그녀가 입을 옷과 비너스에게 입혀줄 옷에는 봄의 꽃 데이지가 가득 피어 있다. 보티첼리 특유의 우아하고 아름다운 곡선과 섬세한 사물의 묘사로 인해 그림의 전반에서 우아한 기품이 느껴진다.

**여신여, 다시 봄의 노래를 불러주소.**

오늘날 보티첼리의 그림을 만나려면 이탈리아 피렌체로 향해야 한다. 피렌체는 보티첼리의 고향이자 15세기 르네상스의 태동을 이끈 중심지이기도 하다. 위에서 소개한 보티첼리의 작품들은 대부분 피렌체의 우피치미술관에 보관되어 있다(그림5). 우피치미술관은 본래 메디치 가문의 개인 미술관으로 조성되었다가 피렌체 시에 기증된 것으로, 소장품의 대다수가 15세기에서 16세기까지 메디치 가문의 후원을 받아 제작된 대기들의 작품이다.

그림5. 우피치미술관(이탈리아 피렌체)



예술가에 대한 적극적인 후원 활동이 시작된 것은 르네상스 시대의 일이다. 왕이나 귀족들이 숨겨 있는 조각가와 화가를 불러 초상화나 벽화 등을 부탁하고 경제적 지원을 해주었다. 메디치 가문은 무역과 은행업으로 부를 쌓은 피렌체 지역의 대표적인 명문가였다. 코시모 데 메디치로부터 시작해서 손자인 로렌초 데 메디치에 이르기까지 메디치 가문의 사람들은 보티첼리를 포함해서 도나텔로, 프라 안젤리코,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와 같은 르네상스의 대기들을 후원했다. 이들의 경제적 후원이 결국 르네상스 미술의 토대가 된 것이다. 그리고 보니 프라 안젤리코의 <수태고지>의 배경도 봄이다(그림6). 가브리엘 대천사가 성모 마리아를 만나 예수의 잉태를 알리는 장면을 그린 것인데, 건물의 왼쪽으로 봄의 들꽃이 가득한 정원이 등장한다. 우연일까?

메디치 가문의 존재를 비롯하여 15세기 피렌체는 여러 가지 면에서 문화를 선도할 준비가 되어있었다. 경제적으로 윤택



그림6. 프라 안젤리코 <수태고지> 1425-30년, 피렌체 산마르코수도원 소재

했으며 학문이 발달하여 많은 인재들이 모여들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원근법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었고, 단테와 보티첼리가 문학을 대표했으며 성 프란체스코가 새로운 종교관을 이끌었다. 이른바 ‘꽃의 성모’라고 불리는 두오모 성당이 완성되어 도시의 중심이 되었다. 보티첼리가 살던 시절, 도시 피렌체는 변화하고 있었다. 신은 떠나고 인간이 남았으며 고대의 철학이 다시 살아나고 신화가 주목받았다. 보티첼리의 그림은 겨울이 가고 봄이 오듯이 중세가 가고 예술이 꽃피는 새로운 시대로 진입했음을 알리는 일종의 선언이라 할 수 있다. 르네상스(Renaissance)라는 말은 ‘재생’ 또는 ‘부활’을 뜻한다. 봄은 겨울 동안 잠든 생명의 기운을 다시 되살린다. 그러니 르네상스는 계절로 치면 봄이라 할 수 있다. 보티첼리는 사랑의 신 비너스의 정원에 찾아든 봄의 풍경을 통해 자신만의 방식으로 예술의 시대인 르네상스의 도래를 기념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속의 계절은 봄이지만 우리의 계절은 여전히 매서운 겨울이다. 봄은 아직 멀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다. 어두운 겨

울을 지나 봄이 어김없이 찾아올 것임을, 고통의 시간을 지나 희망과 치유의 시간이 다가올 것임을, 그리하여 겨울은 참을 만한 시간이 된다. 봄은 만물이 소생하고 부활하는 계절이다. 15세기 피렌체는 봄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의 시간도 다시 봄을 향해 가고 있다.

**글 강은주**  
이화여자대학교 미술사학과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동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에서 학예연구원으로 근무했으며, 현재 대학교와 문화기관에서 미술사를 강의하고 있다.

명작으로 읽는 세계 연극사 ⑥ 스페인

# 후안 마요르가의 다윈의 거북이 (La tortuga de Darwin)



작가 후안 마요르가

유럽의 남서쪽 끝, 이베리아 반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스페인은 남국의 뜨거운 태양과 그만큼 뜨겁게 타오르는 열정을 지닌 사람들의 나라다. 스페인 예술하면 우선 <돈키호테>와 플라멩코, 프랜시스 고야의 그림이 가장 먼저 떠오르지만 스페인은 미겔 드 세르반테스, 로페 데 베가, 페데리코 가르시아 로르카 등 시대를 앞서가는 고인을 희곡에 담아낸 위대한 극작가들을 꾸준히 배출한 나라이기도 하다. 1965년 마드리드에서 태어나 현재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후안 마요르가(Juan Mayorga) 역시 위대한 스페인 극작의 계보를 잇고 있는 젊은 극작가 중 한 사람이다.

현재 스페인을 대표하는 극작가로 활동 중인 후안 마요르가는 1997년에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보수주의 혁명과 혁명적 대화 : 발터 벤야민에 있어서 정치와 기억』이라는 철학 관련 저서도 출판했다. 또한 수학교 전공해서 5년간 중고등학교의 수학교사 경험도 쌓았으며 1998년부터는 마드리드 드라마 예술 왕립학교에서 극작과 철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마요르가의 대표작으로는 <일곱 명의 선한 사람들>, <스탈린에게 보내는 사랑의 편지>, <똥똥이와 훌쭉이>, <천국으로 가는 길>, <하멜른>, <마지막 줄 소년>, <다윈의 거북이>, <영원한 평화> 등이 있다. 이 중 <다윈의 거북이>는 '진화'의 전복적인 개념을 사용해 인간과 역사의 발전(진화)을 비판하는 그의 대표작으로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김동현 연출과 서울시극단이 무대에 올려 많은 관심과 호평을 받은 바 있다.

공연 포스터



## 동물의 눈으로 바라본 인간

<다윈의 거북이>는 인간으로 진화한 거북이를 통해 유럽 현대사를 패러디하고 현대 문명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블랙코미디이다. 이 작품은 진화론의 창시자 다윈이 1835년 갈라파고스 섬을 떠나면서 데리고 나온 거북이 해리엇(처음에는 수컷 거북이인 줄 알고 '해리'라고 불렀으나 이후 암컷임이 밝혀져 '해리엇'이라고 이름이 바뀐 사실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이 인간으로 진화해서 유럽 현대사를 연구하는 교수를 찾아오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한다. 작가 마요르가는 실제로 존재했던 다윈의 거북이 해리엇이 2006년 호주에서 숨을 거두었다는 기사를 접한 뒤, 여기에 연극적 상상력을 보태 이 작품을 완성했다고 한다.

무려 200년의 세월을 지내온 거북이 해리엇은 교수가 저술한 유럽 현대사의 주요 대목들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자신이 그것을 고쳐줄 테니 고향 갈라파고스 섬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부탁한다. 이로 인해 교수와 거북이 해리엇 간의 은밀한 거래가 성립하고 이후 작품은 주로 유럽 현대사에 대한



해리엇의 증인과 기존의 역사관점에서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교수의 대화로 이루어진다. 흥미로운 것은 이 대화 속에서 인간과 역사를 역설적인 비판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작가 마요르가의 관점이 또렷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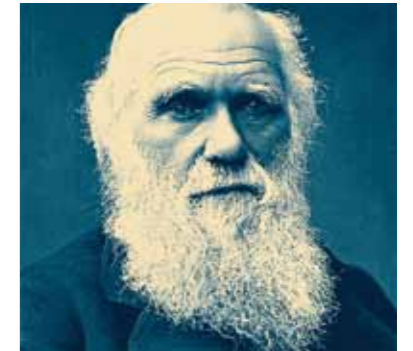
**무엇이 진화이고 퇴보인가**

〈다윈의 거북이〉는 우리에게 이제 ‘지구가 자전을 한다’는 것과 같이 당연한 진리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진화론’에 대해 역설적인 비판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이 작품의 주인공은 200년간 살면서 인간으로 진화한 거북이 해리엇인데, ‘인간으로 진화한 거북이’라는 것은 ‘인간이 원숭이(유인원)로부터 진화한 존재’라는 찰스 다윈의 진화론에 대한 하나의 패러디로 보인다. 물론 과학적으로는 성립될 수 없는 이론이지만 적어도 문학적으로는 원숭이가 인간으로 진화할

〈다윈의 거북이〉 중 한 장면



해리엇의 고향인 갈라파고스 제도



진화론을 주장한 찰스 다윈

수 있다면 거북이도 진화할 수 있다는 은유를 가정할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작품이 ‘무엇이 인간으로 진화되었는가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진화하였는가,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진화’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주고 있다는 점이다. ‘진화’의 사전적 의미가 ‘더 나은 상태로 점점 더 발전해가는 것’이라 할 때, 이 작품에서 진화는 분명 역설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해리엇은 처음 갈라파고스 섬에서 나와 세상을 두루 구경하면서 인간이 이루어낸 눈부신 문명에 감탄하고 인간이 진화의 마지막 단계라는 것을 확신한다. 하지만 이후 200년간 그 진화의 결정체인 인간이 저지르는 수많은 전쟁과 폭격, 테러와 학살 등을 목격하고, 또한 그것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을 지켜본 뒤에는 인간이 진화한다는 생각에 회의를 품게 된다. “난 인류가 뭔가를 배우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라는 해리엇의 단정은 인류가 진화의 가장 마지막 단계라는 이론에 대한 명백한 반대 의견이다. 진화의 초기 단계인 파충류(거북이)가 진화의 최종단계인 인간에게 가하는 따끔한 일침은 이 작품의 역설적 비판 의식을 또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 말을 진화를 처음 주창한 ‘다윈의 거북이’가 한다는 점은 그러한 아이러니를 더욱 강화해준다.

**인간보다 현명한 거북이의 복수**

진화에 대한 작가 마요르가의 역설적인 비판은 역사에 대한 해리엇의 시각뿐 아니라, 작품 속에 등장하는 세 인물과 해리엇의 관계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여기 등장하는 세 인물, 교수와 의사, 교수 부인은 해리엇보다 우위의 시점에서(인간이 동물을 다루듯이) 그녀를 대하지만 자신을 도와줄 것처럼 속인 채 결국은 각자의 잇속만 챙기기에 급급한 그들 앞에서 해리엇은 일부러 ‘퇴화’한 것처럼 연기한 뒤 그들을 독살한다. 죽어가는 그들 앞에서 해리엇이 마지막으로 하는 말은 이 작품 속 인간과 거북이의 전복적 관계를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주는 부분이다. “당신들을 통해 많이 배웠어요. 당신들을 지켜보면서 찰리의 이론을 완성시켰죠. 퇴화이론. 어느 순간이 되면 인간은 짐승 수준으로 퇴화한다는 그 이론. 당신들은 날 이용해 먹으면서 날 완전히 삼켜버리고 싶어 했지. 하지만 거북이를 먹으려면 뒤집어야 하는데 내가 당신들을 뒤집었어.” 한편 세 사람이 죽은 뒤, 해리엇이 그동안 호시탐탐 노리던 ‘먹이’였던 햄스터 헤로도토스의 우리를 열고 먹을까 망설이다 그냥 놔주는 마지막 신은 인간보다 나은 거북이의 면모를 유머러스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다.



### 아래로부터 바라본 역사

〈다윈의 거북이〉는 '진화론'뿐만 아니라 '역사는 발전한다'는 역사관에 대해서도 역설적인 비판의식을 보여준다. 이는 주로 해리엇이 200년간 지켜본 유럽 역사를 교수에게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해리엇이 무엇을 보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시점에서 그것을 보았는가, 즉 관점의 문제다.

“가장 중요한 건 관점이지. 부인은 아래로부터 역사를 봐왔어. 땅과 같은 높이로 말아야”란 교수의 말은 이러한 부분을 잘 보여주고 있다. 교수가 역사를 기록하는 방식은 시대를 추동하는 지배 권력의 거대 담론에 의한 것이지만 해리엇의 증언은 하위 주체의 관점에서 기억하는 ‘망각된 역사’이며 역사의 현장에서 체험한 민중의 역사이다. 해리엇이 기억하는 200년의 유럽 현대사는 교수가 대표하는 교과서적 역사가 아닌, 거대담론의 역사에서 배제된 민중의 관점에서 보는 아래로부터의 역사인 것이다.

그녀는 드레퓌스 사건과 러시아 혁명, 제1, 2차 세계대전과 스페인 내전, 아우슈비츠 학살 등을 ‘아래로부터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인간은, 그리고 역사는 결코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독일 장벽이 무너진 1989년 이후의 역사에 대해 해리엇은 교수에게 더 이상 이야기할 것이 없다고 말한다. 역사가 1989년에 끝나는 것은 아니지 않냐는 교수의 질문에 해리엇은 이렇게 답한다. “난 그때부터 새로운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보스니아, 르완다, 쌍둥이 빌딩, 이라크, 레바논... 다 똑같아요. 난 당신들한테서 아주 멀리 떨어져 살거예요. 모든 동물 중에 인간이 가장 어리석고 해롭죠.” 문명과 역사는 발전한다는 진보적인 역사관에 대한 작가의 비판적 시선은 이렇게 거북이 해리엇을 통해 역설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 거북이가 두 발로 서게 된 순간

해리엇이 갑작스레 인간으로 진화하게 된 과정 역시 이러한 작가의 비판적 시각을 뒷받침해준다. 처음엔 그저 호기심 많은 거북이에 불과했던 해리엇은 두 개의 커다란 단계를 거쳐 인간으로 ‘진화’하는데 바로 ‘걸기’ 시작하게 된 것과 ‘말하기’ 시작한 것이다.

사실 언어와 직립보행은 인간을 다른 동물들과 변별시키고 우위에 서게 한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해리엇이 그렇게 진화하게 된 계기는 또 한 번 작가의 역설적 비판의식을 강조한다. 거북이였던 해리엇이 처음 직립하게 된 것은 스페인 내전 당시였다. 게르니카에서 군인들이 민간인들을 폭격할 때 너무 무서워서 자신의 느낌을 저주하며 도망치다가 갑자기 서게 된 것이다.

또한 말을 시작하게 된 것은 바르샤바의 유대인 거주지역인 게토에서, 독일 병사들이 유대인 아이에게 다가가는 것을 발견하고는 온 힘을 다해 “안 돼!”라고 외치면서였다. 즉, 진화의 가장 위대한 단계인 직립과 언어의 사용을 인류 역사의 가장 끔찍한 순간들에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작가는 다시 한 번 인간과 역사의 ‘진화’에 대한 역설적인 비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다윈의 거북이〉 공연



끝없이 빨라지는 인터넷과 날로 높이를 더해가는 고층빌딩들, 숨 쉴 틈 없이 하루하루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마요르가의 〈다윈의 거북이〉는 무엇이 진화이고 무엇이 진보인가에 대해 한 번쯤 고민하게 만드는 흥미로운 작품이다.

### 글 김주연

고려대학교 노문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러시아 연극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2010년까지 월간 『객석』에서 연극 담당 기자로 활동하면서 『우리 시대의 극작가』 공저를 출간했다. 현재 연극학 박사과정을 밟으면서 연극 칼럼니스트와 드라마티크로 활동하고 있다.



# 오페레타, 그 길지 않았던 영광의 역사

(프라우 루나)



누구나 클래식 음악에 입문하는 시기에 한 번쯤은 프란츠 폰 주페의 <경기병> 서곡에 매료된 적이 있을 것이다. '경기병(輕騎兵)'이란 헝가리 군대에서 유래된 것으로서, 기병이지만 중무장을 하지 않고 주로 정찰업무를 맡는 부대를 말한다. 그런데 서곡만이 아닌 <경기병>이란 작품 전체를 감상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경기병>은 원래 두 시간쯤 소요되는 오페레타다.

오페레타란 오페라(Opera)에 '작다'는 뜻의 축소형 어미 '-etta'가 붙은 것이다. 여기에서 '작다'의 의미는 결코 '공연 시간이 짧다'는 뜻이 아니고 '무대가 작다', '등장인물이 소수이다', '분위기가 가볍다'는 정도의 개념이다. 특히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오페라란 의미에서 한자로는 '경가극(輕歌劇)'으로 표기되곤 한다. <경기병> 서곡 얘기를 꺼낸 것은 둘 다 '가벼울 경(輕)'이 포함된 것을 연상하면 오페레타의 개념을 잘 떠올릴 수 있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희가극(喜歌劇)'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할 것이다. 희가극이란 이탈리아 정통 오페라인 오페라 세리아와 대조적으로 희극적 요소가 포함된 유럽 각국의 오페라를 광범위하게 포용하는 비학문적 용어이다. 물론 오페레타도 희가극의 일부이기도 하다.

오페레타는 오페라 역사에서 잠깐 반짝하고 사라진 일시적 유행으로 볼 수 있다. 밀란 쿤데라의 소설 제목처럼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었기에 무대예술로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없었고 20세기에 접어들면서 보다 대중적인 '뮤지컬'에 흡수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날까지 살아남은 명작들도 적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호에서는 오페레타의 주요 작곡가와 작품을 소개한다.

## 파리의 오페레타 - 자크 오펜바흐

오페레타의 시작은 프랑스 파리였다. 프랑스에는 레지타티보 대신 연극적인 대사를 사용하는 오페라 코미크라는 장르가 있었는데 여기서 코미디의 형용사형인 '코미크'는 희극적이거나보다는 연극적이라는 의미에 가깝다. 프랑스에서 코미디란 희극이기에 앞서 광의의 연극이란 뜻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19세기에 접어들면서 그나마 본격적인 극장 장르에 속하는 오페라 코미크가 대중적 인식인 '보드빌'과 구별되어 점차 품격 있는 주제와 진지한 음악을 다루게 되면서 이 둘 사이의 간극을 메워줄 중간적 형태의 음악극에 대한 수요가 생겼다. 그 역할을 해낸 이가 독일 쾰른 출신의 유대인인 자크 오펜바흐(1819~81)였다. 원래 오케스트라의 첼로 주자로 다방면에 재주가 많았던 오펜바흐는 1855년 파리에서 만국 박람회가 열린 것을 계기로 자신의 사설 전용극장을 설립하고 이곳에서 새로운 형태의 희극 오페라인 오페레타를 상연했다. 당시 프랑스 공연법은 "소극장 공연은 4명을 넘길 수 없다"는 고지식한 제한을 두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진짜 작은 오페라를 만들 수밖에 없었지만 오펜바흐는 노래가 없는 배우를 추가로 무대에 올리는 등 기



프란츠 폰 주페



자크 오펜바흐

지를 발휘했고 결국 파리 시민의 여론을 배경으로 그 규제를 철폐시켜 버렸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서 <천국과 지옥>이란 제목으로 알려진 <지옥의 오르페우스>(1859)는 대규모 오페레타에서 첫 성공을 거둔 역사적 작품이 되었다. 음악적 관점에서 오펜바흐의 작품은 이전의 오페라 코미크를 발전시켰다고 볼 수 없었다. 그러나 풍부한 선율과 유창한 패러디, 신랄한 조롱으로 인하여 칭찬에 인색한 리하르트 바그너조차도 그를 '상젤리제의 모차르트'라고 부를 정도로 천재적인 면모를 보였다. 겉으로는 유쾌한 가운데 가끔씩 드러나는 그의 내면적인 멜랑콜리도 독보적인 것이다. 주요 작품으로는 <아름다운 엘렌>, <제롤스탱 대공비>, <파리의 생활>이 있지만 마지막 명작인 <호프만의 이야기>는 오페레타가 아니라 프랑스 정통 오페라에 속한다. 오페레타 작곡가라고 예술성을 무시받자 자신의 실력을 인정받고자 심혈을 기울였으나 완성을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프랑스 오페레타는 이탈리아의 오페라 부파와 비슷하다고 해서 오페라 부파(opera bouffe)로 불리기도 한다. 엄밀히 말하면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혼용해서 사용해도 별 무리는 없다.



요한 슈트라우스



프란츠 레하르

#### 빈의 오페레타 - 요한 슈트라우스와 프란츠 레하르

오스트리아의 빈은 독일권이지만 음악적 토양이 독특한 곳이다. 바로크 시대부터 이탈리아 출신 음악가들이 궁정과 극장의 요직을 독차지했고 그 음악은 북독일의 묵직하고 어두운 성향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밝고 편안한 것이었다. 19세기에 접어들자 왈츠가 상류층의 무분별한 생활을 조장한다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빈에서 특별히 성행한 것도 이런 문화적 토양에서 가능했으리라. 오펜바흐와 동갑내기인 프란츠 폰 주페(1819~1895)는 빈 스타일의 오페레타에서 최초의 대가였다. <경기병>이 활기찬 서곡 덕분에 유명하지만 주페 최고의 걸작으로는 <보카치오>가 꼽힌다. 다만 그의 작품은 이미 존재하고 있던 민속 오페라의 전통에 간간히 이탈리아 풍의 서법과 왈츠를 섞은 정도여서 전형적인 빈 스타일을 창조하지 못했다. 따라서 1861년부터 오펜바흐가 빈에 진출하자 파리의 오페레타의 인기를 따라잡을 수 없었다. 그러자 '왈츠의 황제' 요한 슈트라우스가 직접 나섰다. 슈트라우스는 왈츠, 폴카를 비롯해 빈 사교계를 석권한 춤곡을 듬뿍 사용하여 전형적인 빈 스타일의 오페레타라 할 만한

들을 확립했고 단번에 '빈 오페레타의 제왕'으로 화려하게 변신했다. 오늘날에도 변함없는 신선함을 자랑하는 <박쥐>가 1874년에 초연되면서 이번에는 오펜바흐가 순식간에 빈에서 인기를 잃었다. 슈트라우스는 <베니스에서의 하룻밤>과 <집시 남작>을 후속 작품으로 발표했다. 또 슈트라우스의 인기 에 편승하여 등장한 칼 밀뢰커, 칼 켈러, 리하르트 호이베르거도 인기를 끈 오페레타 작곡가 그룹이었다. 그렇다면 파리의 오페레타와 빈의 오페레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파리 오페레타의 생명력은 톡톡 쓰는 신랄한 풍자에 있었다. 여기에 세기말을 지나면서 테카당스한 분위기가 더해져 일부 작품은 외설적이라는 평을 듣기도 한다. 반면 빈의 오페레타는 풍자보다는 넉넉한 인심과 인생에 대한 낙관주의를 바탕에 깔고 있고 작품 자체가 거대한 무도회를 연상시키는 율동의 연속이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요한 슈트라우스가 세상을 떠나는 1899년을 전후하여 켈러와 밀뢰커마저 모두 타계함에 따라 빈 오페레타는 갑작스런 공백기에 돌입하게 된다. 하기가 <박쥐> 이후 4반세기 동안 아무런 변화 없이 흘러왔기 때문에 새로

운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었다. 이때 혜성같이 등장한 이가 헝가리 근악대장 출신이라는 특이한 경력의 소유자 프란츠 레하르(1870~1948)였다. 그의 출세작 <유쾌한 미망인>(1905)은 왈츠라는 빈 고유의 생명력을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도 여기에 동유럽적인 이국 취향과 '황혼의 우수'로 불리는 레하르의 특기를 부가하여 대성공을 거두었다. 제2기 빈 오페레타의 시작이었다. 그러나 기간은 짧았다. 왈츠의 흥청망청한 분위기에 휩쓸리다가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공전의 대위기를 맞이했기 때문이었다.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레하르는 멋지게 재기하여 <러시아의 황태자>, <미소의 나라>를 발표했다. 에머리히 칼만을 위시하여 동유럽 출신의 동료 오페레타 작곡가들의 활동도 활발했다. 하지만 1930년대 대공황의 여파, 유성영화 시대의 개막, 뮤지컬 코미디의 등장으로 빈 오페레타의 영광은 갑작스런 쇠퇴를 맞이했다.

#### 베를린과 런던의 오페레타

오페레타의 양대 산맥은 지금까지 설명한 파리와 빈이었지만 베를린과 런던의 오페레타도 음악 상식의 차원에서 조금 알

<박쥐>







(미카도)

아주먼 좋을 것이다.

우선 독일은 독일어 민속 오페라인 징슈필의 빛나는 전통이 있었기에 음악적 구분점이 거의 없는 오페레타를 따로 떼어 낼 필요가 없었지만 단지 흥행의 목적에서 빈 스타일을 흉내 낸 것이 베를린 오페레타의 시발점이 되었다. 그러다가 19세기 말에는 뮤지컬과 유사한 오락성이 크게 강조됨으로써 특유의 개성을 확보한다. 파울 린케, 에두아르트 퀴네케의 이름이 유명한데 특히 린케의 오페레타 <루나 부인> 개정판(1922)에 포함된 '베를린 공기'라는 행진곡은 베를린에 대한 찬가처럼 인식되고 있다. 매년 6월에 베를린에서 열리는 발트뷔네 야외 콘서트는 마지막 곡으로 이 행진곡을 연주하고 관객들은 음악을 따라 가볍게 몸을 흔들고 휘파람을 불면서 박수를 치는 것이 관행이다.

런던의 오페레타는 이른바 길버트-설리반 오페레타로 불린다. 여기서 길버트는 대본작가이고 아서 설리반이 작곡을 맡았다. 파리 오페라의 풍자에 더 가까운 것이었으며 <전함 피나포어>, 일본을 배경으로 삼은 <미카도>가 공전의 성공을 거두었다. <미카도>는 일본 문화와 일본 천황을 비하했다는 이유로 일본과 영국 사이의 외교적 마찰이 일어났을 정도로 화제작이었다. 영어 오페라 중에서 역사상 최고의 흥행성을 지녔던 오페레타 <길버트-설리반>은 1950~60년대까지도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에서 자주 상연되었지만 현재는 크게 퇴조한 상태이다. 필자가 영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을 때 오페레타 <길버트-설리반>의 근거지로 일세를 풍미했던 런던의 사보이 극장을 찾아가 보았지만 더 가벼운 코미디를 상연하는 이류극장으로 전락한 모습만을 볼 수 있을 뿐이었다. 아무튼 런던 웨스트엔드 뮤지컬의 풍부한 자양분이 되었다. 미국의 뮤지컬 코미디도 오페레타와 무관하지 않다. 일단의 코러스 걸이 볼거리를 선사하는 그 근원적 형태는 독자적으로 이미 19세기에 골격을 갖추었고 제롬 킨, 어빙 벌린, 조지 거슈윈, 리처드 로저스 등 토박이 음악가들이 음악적 활력을 불어 넣었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으로 이주한 세 명의 유럽 작곡가들이 빈과 베를린, 그리고 런던 오페레타의 풍요로움을 더함으로써 수준을 향상시켰다. 그 이름은 아일랜드 출신의 빅터 허버트, 체코 출신의 루돌프 프리들, 그리고 빈 오페레타의 매력을 미국 뮤지컬에 주입한 최대의 공로자로 불리는 헝가리 출신의 지그문트 롬베르크다.

**글 유형종**

연세대학교와 서울대 대학원에서 경영학을 공부했다. 금융기관에 근무하면서 1995년부터 음악과 무용에 관한 칼럼을 썼고 현재는 무지크비움 대표로 있으면서 강의를 하고 글을 쓴다.

# 03

- 50 체험 전시 <브루미즈>
- 52 문화현장 - '안녕?! 오케스트라' 1년 성과 보고
- 54 문화탐방 - 청소년 극단 '고등어'
- 56 칼럼 - 음악치료 시리즈 ④



Main Theme

ASAC 문화사업

동물 자동차 친구들과 함께 떠나는 신나는 모험

# 초스피드! 파워엔진! 최강의 '브루미즈'가 다가온다



<브루미즈>는 어른과 아이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 전시이다. 동물 자동차 브루미들의 마을, 지피시티에서 일어나는 일상의 문제들을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협동하여 문제를 해결해가는 브루미들의 신나는 모험 이야기가 전시에 녹아있다.



체험 전시 <브루미즈>는 '탈 것'을 체험하고 신나게 놀면서 협동의 중요성과 교통안전에 대해 스스로 느끼고 실행하도록 하는 모험 가득한 어린이 체험 전시이다. 호기심이 가득한 4~7세까지의 미취학 아동이 흥미와 욕구에 따라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다양한 교육 서비스와 이벤트, 어른들도 함께 체험하고 즐길거리들을 제공함으로써 부모와 자녀 모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더 나아가 건강한 가족 문화 육성에 기여하고 있다.

### 지피시티를 누비는 창의적인 동물 자동차

'브루미'라고 불리는 신기한 동물 자동차들이 모여 사는 도시, 지피시티에는 다양한 주인공들이 있다. 리더십이 풍부한 스피드 광 '스피더 치타', 엉뚱하고 익살맞은 원숭이 '번지 몽키', 똑똑하고 호기심 많은 꼬마 사슴 '페라 폰' 순진하고 마음 착한 기린 '제리 저래프', 힘세고 먹을 것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피터 팬더'는 언제나 힘을 모아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척척 해결해낸다. 이 다섯 꼬마 주인공들은 잃어버린 꼬마 돼지들 찾기, 황새 아줌마의 아기 알 찾아주기 등 지피시티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재미있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풀어나간다.

깜찍한 외모와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가득한 꼬마 브루미들이 오늘은 또 무슨 문제를 어떤 기발한 방법으로 해결해 나갈까? 귀여운 꼬마 동물 자동차 브루미들의 활약을 지켜보자!

### 브루미즈의 리더 '스피더'를 소개합니다!

리더십과 용기, 그리고 책임감이 있는 브루미즈의 리더 '스피더' 항상 입에 달고 사는 '부릉부릉' 이란 말처럼 스피드 광이다. 스피드 광 스피더와 함께 신나는 레이스 경주도 도전해 보자! 잠깐! 경주할 때로 교통신호를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은 절대 잊지 말길!



### 전시 안내

- 날짜 : 2013년 12월 25일(수) ~ 2014년 3월 2일(일) / 매주 월요일 휴관
- 공연장 :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제1, 2, 3, 4전시실
- 티켓 : 어린이(24개월 이상) - 15,000원 / 성인 - 12,000원 / 전담회원 - 10% 할인 / 장애인 · 국가유공자(동반 1인) - 50% 할인
- 관람연령 : 24개월 이상
- 문의 : 031-481-0525



# 안녕?! 오케스트라 향상음악회



## 꿈 그리고 감동

# ‘안녕?! 오케스트라’는 음악가족이에요

안산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안녕?! 오케스트라’는 ‘꿈의 오케스트라’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베네수엘라의 엘 시스테마 교육철학을 모토로 삼고 있다. 꿈의 오케스트라인 안산문화재단의 ‘안녕?! 오케스트라’는 특별히 다문화 특성 지역으로 다문화가정 아동 70%, 일반가정 아동 30%의 비율로 운영되고 있으며, 오케스트라 교육을 통한 협력과 상호존중을 배우고 있다.

2013년 여름 처음 첼로를 접한 발레리아는 아직 한국말이 서툴다. 발레리아 또한 ‘안녕?!오케스트라’를 시작하고 처음 악보를 읽어보는 단원 중 한 명이지만 누구보다도 열심히 연습하고 오케스트라 안에 친구들도 많이 생겼다. “안녕?! 오케스트라는 음악가족이에요.” 단원들에게 중요한 전달사항이 있거나 자세한 확인이 필요할 때는 러시아어 통역관인 아델리아가 나서서 한국어가 서툰 아이들을 도와줬다. ‘안녕?! 오케스트라’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안산문화재단이 주관하는 문화예술교육사업이다. 2012년 MBC 기획다큐멘터리 <안녕?! 오케스트라>에 참여했던 단원 20명을 포함해 현재 45명의 아이들이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안산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안녕?! 오케스트라’ 역시 전국 30개 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꿈의 오케스트라’ 지원사업의 일환이다.

‘안녕?! 오케스트라’에는 2013년 6월 처음 악기를 만져본 아이도 있고 2012년 다큐멘터리에 참여해 1년 남짓 악기를 배워온 아이들도 있다. 부모의 국적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른 아이들이지만 하나의 소리를 만드는 법을 배우며 함께 성장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아이들은 꿈 같은 경험을 했다. 부산국제영화제 폐막식에 초청되어 아이들의 영원한 멘토인 리처드 용재 오닐과 함께 부산영화의전당 무대에 선 것이다. 긴 시간의 이동에 지칠 법도 한데 아이들과 리처드 용재 오닐은 공연을 마친 후에도 부산 밤바다에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었다. 그 밖에도 리처드 용재 오닐은 아이들을 위해 영국 BBC 심포니 오케스트라 단원들을 안산까지 초청해 아이들을 위해 수업을 진행해주거나 클래식 공연 티켓을 자비로 구입하여 단원들을 초청하기도 하는 등 다큐멘터리가 끝난 후에도 아이들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안녕?!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떨리는 마음으로 2013년 12월 16일에 첫 번째 정기연주회도 가졌다. 악기를 배운 지 반년도 되지 않은 아이들이 당당한 오케스트라 연주자로 무대에 선 것이다.

아이들이 안산문화재단의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인 ‘안녕?! 오케스트라’를 통해 성장해가는 모습들은 말 그대로 감동의 파

노라미었다. 저마다 피부색과 쓰는 언어는 조금씩 다르지만 ‘안녕?! 오케스트라’를 통해 아이들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하나가 되는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이들의 연주는 ‘우리는 하나’라는 또 다른 표현이다. 다른 악기들의 소리를 들으며 하나의 화음으로 만들어가는 합주수업은 아이들을 즐겁게 만든다. ‘안녕?! 오케스트라’의 끝나지 않는 이야기는 계속 될 것이다.

### 2013년 안산문화재단 ‘안녕?! 오케스트라’ 주요 활동

- 6월 5일 단원 & 학부모 오리엔테이션
- 6월 30일 로열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공연관람
- 8월 8일~10일 여름 집중워크숍
- 8월 16일 금난새의 청소년 힐링음악회 관람
- 8월 30일 향상음악회
- 10월 7일 영국 BBC 심포니 오케스트라 초청수업
- 10월 12일 부산국제영화제 폐막식 참가
- 10월 18일 카리카스 유스오케스트라 공연관람
- 12월 16일 ‘안녕?! 오케스트라’ 제1회 정기연주회 (꿈 그리고 시작)

문화사업부





창작뮤지컬 <윈터 호러 하우스(Winter horror house)>로 관객몰이할 청소년 극단 '고등어'

## 우리들의 꿈 이야기: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공연해요!

청소년 극단 '고등어'의 시작은 '2013 오키나와 국제아동청소년 연극제(이하 키즈무나페스타)' 참가를 위해 만들어진 연극교실이였다. 키즈무나페스타는 청소년 국제문화교류사업으로 안산시와 안산문화재단이 안산 거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참가자를 모집했다. 자기소개서, 면접 등 까다로운 전형 절차에도 많은 지원자들이 몰렸고 공개 경쟁을 통해 14명이 최종 합격했다.

청소년 극단 단원으로 키즈무나페스타에 참여한 강서고등학교 문지영 학생은 면접 당시를 대학 연극과의 면접시험을 보는 것 같았다고 했다. "오디션과 면접이 동시에 진행됐는데 지원 동기, 포부, 활동경력을 집중적으로 물어봤어요. 친구들이 너무 잘 해 많이 떨어졌는데 다행히 학교 연극부 활동으로 착실히 준비한 덕분에 합격한 것 같아요. 합격 소식을 듣고 가족들이 모두 기뻐서 난리가 났었어요." 키즈무나페스타 참가작은 황순원의 <소나기>. 2013년 7월

25일과 26일, 이틀 동안 오키나와 나가노미치공민관 무대에 올려진 <소나기>는 토속적인 한국의 정서와 애뜻한 사랑을 마음으로 재구성해 호평을 받았다. 일본 공연 후에는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별무리극장에서 2회 공연을 했다. "마음을 통해 몸의 언어를 배웠어요. 내 몸이, 동작 하나하나가 언어가 된다는 것이 놀라웠어요. 숨을 크게 내쉬는 것도, 발을 앞으로 한 발짝 내딛는 것이 감정을 전달하는 대사와 같은 도구가 된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무대에서의 <소나기>는 수업시간에 만난 소설 『소나기』와는 다른, 한마디로 감동이 깊이가 달랐습니다."

### 창작극을 만든다

키즈무나페스타 참가 후 자신감을 얻은 청소년 극단은 본격적으로 창단 공연을 준비했다. 제목은 <윈터 호러 하우스>. 김규남 연출가는 이 작품을 '호러와 유머가 섞인 청소년

들의 꿈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윈터 호러 하우스>는 극단 단원들의 스토리텔링을 기초로 대본을 완성한 창작극으로 고교 졸업식 날 '귀신의 집'으로 꾸며진 교실이 무대 배경이다.

"처음부터 아이들과 창작극을 하기로 했어요. '우리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만들자!' 하고 의견을 모았죠. 결국엔 '꿈'이었어요. 아이들은 생각보다 자신의 미래를 많이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각각의 꿈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노래를 만들었고, 노래를 하면서 연습시간과 친구들과의 관계를 즐길 수 있었어요. 창단 작품이 뮤지컬이라 어려움은 많지만 보람도 큼니다. 대부분의 연극이 주연과 조연의 앙상블이라면, 이번 <윈터 호러 하우스>는 주·조연을 크게 나누지 않고 각각의 인물이 비슷한 비중으로 등장합니다. 대신, 캐릭터를 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청소년 극단의 가장 어려운 점은 연습시간 부족! 학교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주말 연습을 하고 있다. 학사 일정이 학교마다 달라 모두 모이는 것이 쉽지 않다. 인터뷰하는 날도 시험기간이라 참여인원의 반 정도만 온 상태. 하지만 '연습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는 듯 피아노 앞에서 노래 연습을 하고, 대본을 읽는 등 개인 연습에 몰입하고 있었다. 연습에 참여하지 못한 한 단원은 연출가에게 "시험 잘 보고, 연습에 곧 합류하겠다. 마음은 벌써 연습실에 가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청소년 극단은 대부분 관내 연극반 고교생이 주축을 이루지만 연극반에 적을 두지 않는 단원도 2~3명 있다. 청소년 극단에서 유일하게 중학생인 박덕희 단원은 단원의 막내로 뮤지컬 배우가 꿈이다. 그는 배우 지망생답게 "저는 단원중학교에서 반장을 맡고 있으며 이번에 당당히 경기 예고에 합격했습니다"라고 크고 정확한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했다.

"청소년 극단에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낯선 얼굴 사이에 익숙한 얼굴이 보였거든요. 2~3년 전, 제가 광덕공원 야외무대에서 '우리동네 왓자지껄'을 기획할 때 만난 덕회를 다시 만났거든요. 당시에 배우 한 명이 참석하지 못해 곤

란했었는데 마침 덕희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됐습니다. 잠깐 등장한 것에 비해 인기는 최고였습니다. 청소년 극단에서 만난 '덕희'는 그때와 달리, 더 단단해지고 아무진 친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청소년기의 예술 활동은 자신의 꿈과 미래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을 알게 됐고, 아이들에게 이런 기회를 준 안산문화재단에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 안산, 청소년 연극의 메카?

김규남 연출가는 이번 공연을 통해 "아이들이 자신을 좀 더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내가 누구인지 알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 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저도 제 자신을 아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다른 동기보다 늦게 학교에 들어갔지요. 물론 늦은 것이 다 좋은 건 아니지만 내가 원하는 걸 일찍 발견한다는 건 그만큼 열정을 쏟을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작품은 예술성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에너지를 발견하고 나와 너(친구)를 알아가는 과정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3~4개월동안의 연습을 통해 단원들의 가장 큰 변화는 서로에 대한 배려를 배운 것이다. 청소년기에 흔히 있을 수 있는 배타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단원들에게는 전혀 없다. 오히려 관계의 폭이 넓어지면서 이해심이 생겼다.

"창단 공연이 끝나면 단원들의 연극적인 기술향상과 인간적인 성숙을 위해 다양한 워크숍을 진행하려 합니다. 그러면 청소년 극단도 다른 연극교실이 배출한 극단처럼 자립적인 형태의 극단이 되지 않을까요? 청소년 극단을 거쳐 간 많은 선배들은 후배들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고요. 제 꿈은 청소년 극단이 창작극으로 매년 1~2회의 정기공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면 안산문화재단은 청소년들의 친근한 아지트가 되고 청소년 연극의 중요한 메카가 되겠지요? 그 순간을 위해 열심히 연습하겠습니다."

글. 남양숙



음악치료 시리즈 ④ 소리에서 음악으로

# 음악의 기능과 역할

인간에게 음악이란 과연 무엇인가? 인간이 음악에서 진정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먼저 음악의 본질적인 의미와 기능이 무엇인지 이해해볼 필요가 있다. 이번 호에는 '음악'과 인간의 '음악적 경험'에 따른 기능적 의미를 살펴보면서 위의 질문에 접근해 보고자 한다.



음악은 신비한 것.

그런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것이다.

음악은 사고와 현상 사이,

그리고 정신과 사물 사이에 존재하면서

그 둘을 막연하게 증개하기 때문이다.

음악이 무엇인지, 결국 우리들은 알 수 없다.

- Heinrich Heine(하인리히 하이네) -



## ● 감정 표현

문화인류학자인 메리엄(A. P. Merriam, 1964)은 “음악은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감정을 쉽게 표현하도록 해준다”며 감정 표현의 기능을 이야기하였다. 즉 평소 잘 처리하지 못하는 생각이나 감정을 쉽게 전달하는 도구로서 그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사실 서로의 감정을 표현하고 느끼며 이해하기 위해서는 음악의 형태가 아니라도 말의 각 음절과 음절 사이에 내포되어 있는 음악적인 요소만 가지고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다. 하지만 휴대폰으로 문자를 주고받을 때나 메시지를 통해 의사소통할 때는 정서적인 측면의 내용을 전달하기가 어렵다. 그 이유는 청각적 매개인 음악적인 요소가 배제된 채 시각적 형태만 전달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자 교류에 있어서 이모티콘이나 특수문자를 사용하여 제한된 청각적 표현을 대체하면 감정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다.

단순한 음악적인 요소만으로도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악의 형태를 사용하는 것은 음악이 인간의 인지와 사고의 영역을 넘어 내면에 존재하는 감정을 표출하는 데 가장 유용하기 때문일 것이다.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불쾌한 감정들을 표현할 때, 사랑의 감정을 전달하고자 할 때, 마음의 상처나 한(恨)을 승화시키는 과

정에서 사용하는 노래나 연주는 우리가 이미 음악을 감정 표현의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 ● 상징적 기능

사회학자인 케플란(Max Kaplan)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외부적 개념들, 즉, 신이나 자유, 절기, 아름다움, 젊음, 종교, 기쁨 또는 슬픔 등의 다양한 상징적인 세부내용들을 음악이 내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음악이 인간문화 곳곳에 다양한 생각과 행동들, 또한 그 밖의 여러 상징들을 포함하는 기능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애국가'는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음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각 단체들도 그 집단의 특성과 목적에 따라 상징적인 음악 형태를 만들어 남기고자 한다. 학교의 '교가', 군대의 '군가', 회사의 '사가' 등. 상업적인 광고에 사용되는 음악도 간단한 선율이나 음색을 도구로 하여 상품의 상징을 담아 판촉과 홍보에 사용한다. 또한 새해를 맞이하는 '신년음악회', 연말에 거리에서 듣는 '크리스마스 캐럴', 결혼식장에서 들을 수 있는 '결혼 행진곡', '생일축하 노래' 등은 음악의 상황에 따른 상징적 기능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다. 그래서 종교의식에서 음악을 배제한다는 것을 상상하기 어려운 이유도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사회적 규범

케플란(Max Kaplan)과 메리엄(A. P. Merriam)은 또한 음악이 사회의 통제나, 도덕, 윤리, 규범을 일깨우는 데 사용되며, 사회가 나아가 할 길을 제시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방향으로 나가도록 인도하는 기능을 갖는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국민제조 음악'을 통해 체조를 하면서 체력은 곧 국력이라는 범국민적인 규범을 일깨우는 경우, 또한 어린 시절에 불렀던 '아침 해가 떴습니다'와 '학교 중'이라는 동요를 통해 생활습관이나 학교생활에 대한 규율을 배울 수 있었던 것이다. 70년대 초반, 아침에 동네 곳곳에서 '새마을 노래'를 들으며 일터로 나갔던 기억이나, 군대에서 불렀던 군가 '멋진 사나이'는 나라를 지키는 군인으로 책임감을 고취시키는 역할을 감당한다는 사실은 군에 다녀온 사람이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 미적 즐거움

프랑스의 사회심리학자 게스팅(E. T. Gaston, 1968)은 음악이 인간에게 미적인 즐거움을 주며, 아름다움에 대한 경험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대상으로 보았다. 미적 즐거움과 표현, 그리고 경험의 필요성은 사람이 한 인간으로 살아가는 데 가장 필수적인 요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름다움을 음악으로 표현하지 못한다는 것은 모든 가능성에 대한 장애로 볼 정도로 음악의 미적인 의미를 중요시 하였다. 중요한 것은 음악의 미적 기능의 척도가 미에 대한



절대적 기준이 아닌 음악을 수용하는 각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 영역에 대한 논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어쨌든 음악은 그 구성 자체로서 인간에게 아름다움을 경험시켜주며, 음악이 갖는 표면적 특질로 감각적인 즐거움과 동시에 심미적인 소리의 상징화, 즉 소리에서 느껴지는 심리적인 맥락의미를 제공해준다. 결과적으로 이런 과정의 흐름은, 곧 음악 연상을 통해 신비로운 내면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며 풍성한 즐거움을 선사해준다.

◎ 문화의 연속성

게스팅(E. T. Gaston)은 문화와 사회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음악의 일반적 기능은 대개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음악적 기능으로 볼 때 개인의 반응은 그들 고유의 문화적 맥락 안에서 나타난다고 보았다. 따라서 문화적 배경은 음악기능의 기초가 된다는 유기적인 관계로 설명하였다. 결국 음악의 기능은 그 민족의 특성과 문화, 사회에 따라 각각의 특성을 지니는 것이다.

케플란(Max Kaplan) 또한 "음악은 시간의 모든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시나리오를 연결하는 내용으로 포함한다"면서 베토벤의 교향곡은 과거에 있었으며 지금도 있고 미래에도 존재할 것이며 다만 속해 있는 문화 해석

의 차이만 존재할 것으로 사료했다. 즉, 음악이란 축적된 문화의 본질을 예술로서 승화하여 객관적이며 실험적인 세계의 형태로 정립시켜 이를 통해 시공을 초월하는 시나리오와 같은 연결고리를 갖게 되는 것이다. 시대, 문화, 민족의 특수성, 고유성에 따라 변화하고 다르게 해석되지만 고유의 본질은 그 속에 남아 새로운 해석으로 계속 시나리오처럼 연결되는 것이다. 이처럼 음악은 사회와 문화의 지속과 보존에 기여하는 기능을 갖는다.

◎ 사회 통합

사회 구성단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구성 기초단위가 서양은 개인이다. 동양에서는 개인주의적 성향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는 있지만 가족을 기초 사회구성단위로 본다. 그 다음으로 상위단위는 집단이며 더 나아가 몇몇 집단이 모여 응집하면 군중으로 확대된다. 그 군중이 합쳐지면 우리는 대중이라 칭한다. 음악에는 이런 사회기초단위에서 대중에 이르기까지 서로 함께 어울리고 화합하여 결속시키는 기능을 갖는다. 즉 개인이나 가족의 이념 혹은 신념 등을 집단, 군중, 또는 대중과 함께 공동소유하며 화합할 수 있는 기능을 갖는다는 것이다. 한일월드컵이 있던 2002년 여름, '붉은악마' 응원단의 한 회원은 간단한 리듬을 만들



어 집단과 함께 공유하여 응원 구호를 창안해 냈다. ' 짹~ 짹~ 짹~ 짹~ 대~한민국! ' 간단한 이 리듬 하나로 상암동 월드컵 스타디움의 군중이 함께 혼연일체가 되어 응원했으며, 이후 온 국민들이, 더 나아가 온 세계의 사람들이 이 리듬으로 하나됨을 체험했던 사건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다. 물론 지역사회와의 작은 음악동아리나 동우회에서 행해지는 노래교실도 성원들의 감정을 통합하고 교류하며, 합창이나 기타연주를 하면서 공감하며 서로 화합하는 체험을 하는 것을 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이처럼 음악은 사람들의 단조로운 사회적 관계를 점차적으로 확대하며 결속력을 갖게 하는 기능을 갖는다고 볼 수 있겠다.

● 성취감 제공

위에서 살펴본 기능 외에도 음악은 너무나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감당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바로 청소년과 아동들의 성취감을 제공하는 것이다. 아이들뿐 아니라 성인들도 삶 속에서 만족은 성취감에서 온다. 현대사회의 구조가 경쟁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경쟁에서 쟁취하는 성취감은 극히 드

물다. 반면 음악은 비경쟁상황에서 성취감을 제공한다. 음악을 생산하는 과정 자체가 성원 간의 경쟁이 아닌 연합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긍심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화합과 통합과는 별개로 집단에서 개인을 분리시켜 개인적인 정서 영역을 보장해 주고 인정해 주는 역할을 겸하기도 한다. 이처럼 음악은 인간에게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감당하면서 상황에 맞게 사람들을 배려하고, 격려하며, 위로하는 중요한 도구의 역할을 한다. 긴장이완을 돕고, 반성과 회고를 위한 배경을 제공하며 우애로운 경호와 관조, 그리고 다양한 주관적 감정을 확보하고 허용해 주는 역할 또한 제공한다. 그래서 인류는 상호의존의 강한 표현으로 음악을 자장가에서 장례식까지 섬세한 감정 표현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글 하준성

중앙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를 졸업하고 독일 베를린 음악치료전문대학원에서 석사학위(Dipl. MT)를 받았다. 독일 공인음악치료사로 현재 여러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으며, 순천향대 건강과학대학원 심리치료학과 음악치료임상교수와 HUS음악치료발달연구소 소장, '음악힐링아이' 대표를 맡고 있다.



04

- 62 단원미술관 전시
- 66 2014년 기획공연 프리뷰
- 72 독자코너 - 독자엽서

Main Theme  
ASAC News



2013 단원미술관 겨울 기획전시 <네버랜드, 그 첫 번째 방>

# Neverland, 그 첫 번째 방에서 만난 현실 속 웬디들

안산문화재단은 2013년 단원미술관 겨울 기획전시 <네버랜드, 그 첫 번째 방>을 개최한다. 2013년 12월 23일부터 2014년 1월 29일까지 열리는 <네버랜드, 그 첫 번째 방>은 새로 이전한 단원미술관에서 개최되는 첫 번째 겨울 전시로 제임스 매튜 베리(James Matthew Barrie)의 『피터팬』에 나오는 주인공 웬디가 꿈꾸는 모험과 상상의 세계를 모티브로 한 현대미술 작품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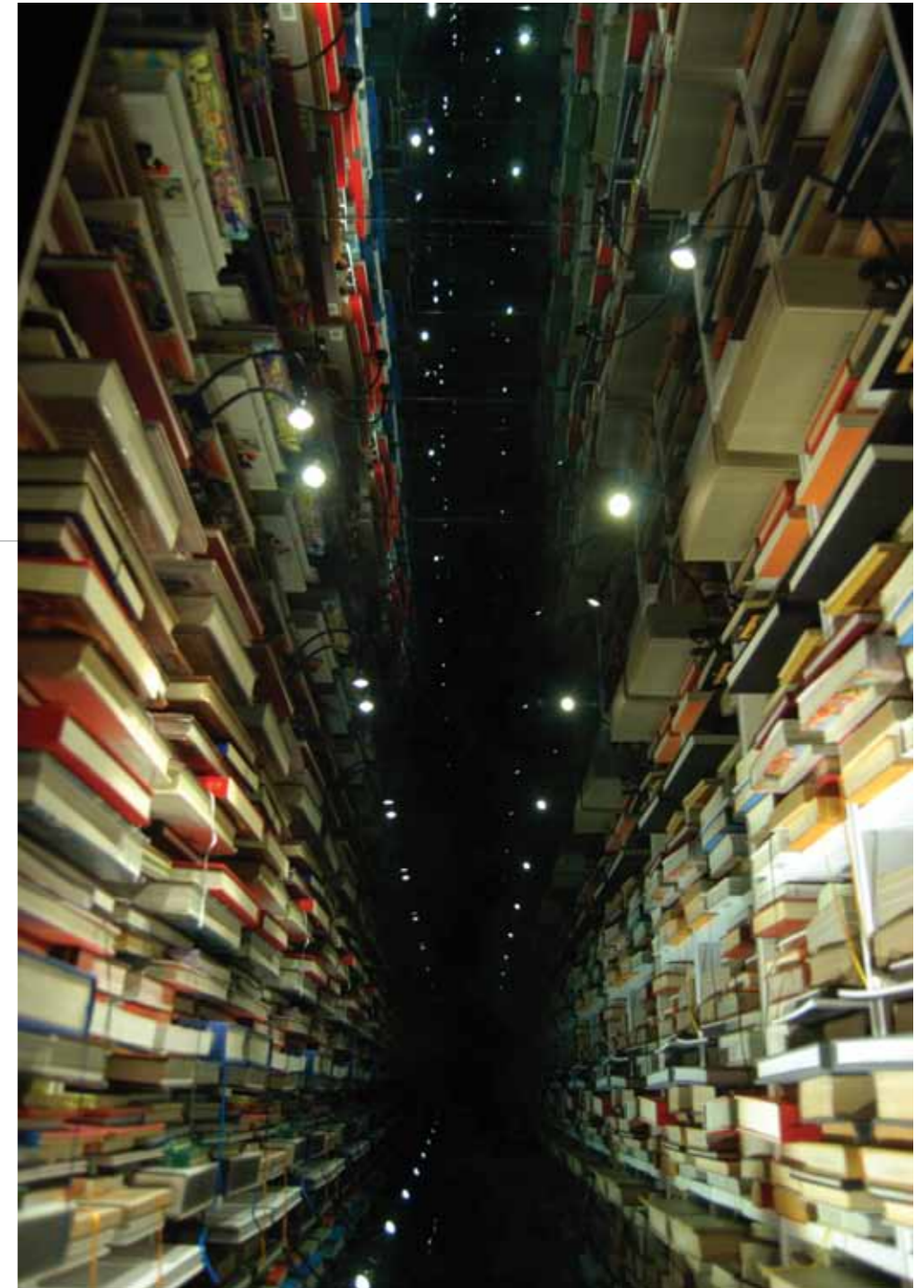


『피터팬』에서 웬디는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만 <네버랜드, 그 첫 번째 방>에 참여한 작가들은 규율과 관습을 강요하는 현실세계에서 상상력을 잃어가는 웬디의 모습을 대변한다. 사회 현상이나 일상적인 풍경에서 탈출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는 작가들은 어른이 되기를 거부하는 웬디 혹은 네버랜드로 이끄는 피터팬과 닮아 있다. 우리를 네버랜드로 인도하는 작가들은 회화, 조각, 설치, 영상 등 매체에 국한되지 않고 대상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현해 낸다.

이번 단원미술관 겨울 기획전시에 작가는 이이남, 이예승 등 현재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미디어 작가를 비롯해 김성호, 김현숙 등 현재 미술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설치미술 작가 16명이 참여해 35점의 다양한 현대미술 작품을 선보인다.

관람객들은 평소 쉽게 접해보지 못한 미디어나 컴퓨터 프로그래밍 등 기술적 상상력을 통해 구현된 작품들을 통해 무한한 상상을 펼칠 수 있는 판타지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컴퓨터 기술을 활용한 뉴미디어 아트와 일상적인 오브제를 활용한 창의적인 설치미술 작품들은 겨울방학을 맞은 학생들에게 현대미술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줌과 동시에 작품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통해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소통의 장이 될 것이다. 한편 단원미술관은 전시를 관람하러 온 관람객들에게 보다 쉽고 깊이 있는 작품 감상을 위해 하루 4차례 도슨트(작품 해설)를 운영한다.

단원사업부







이예승, <CAVE into the Cave>



이이남, <모나리자-페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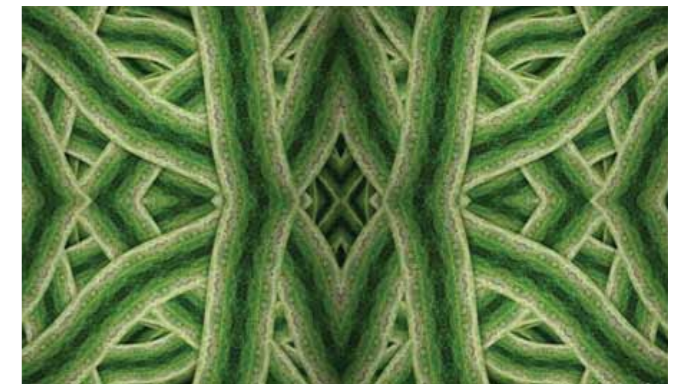


김세현, <Optical Pyramid 003>



스티키몬스터랩

이지연, <Green>



전시 안내

- 날짜 : 2013년 12월 23일(월) ~ 2014년 1월 29일(수)
- 장소 : 단원미술관 제1관
- 관람시간 : 오전 10시 ~ 오후 7시 (입장마감 오후 6시 30분)
- 전시내용 : 회화, 조각, 설치, 영상, 뉴미디어 아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실험적이고 대중적인 현대미술 작품전
- 참여작가 : 김성호, 김세현, 김용관, 김현숙, 노상준, 노해울, 민성홍, 박제성, 박천욱, 신유라, 윤정미, 이예승, 이이남, 이지연, 정성윤, 스티키몬스터랩 등 총 16명
- 관람료 : 무료
- 전시해설 : 오전 11시, 오후 1시, 3시, 5시(1일 4회)  
※ 단체관람의 경우는 별도 예약
- 주최/주관 : (재)안산문화재단
- 문의 : 단원미술관 031-481-0504


## 2014년 안산문화재단의 공연을 소개합니다


### ● 2014년 월별 주요 공연


일정	공연명	장르	기타
1월	〈노트르담 드 파리〉	뮤지컬	
3월	아침음악살롱1	클래식	
4월	〈마르고 닳도록〉	연극	
5월	아침음악살롱2	클래식	
	가족극장시리즈1 〈레슬링시즌〉	연극	
6월	〈캣츠〉	뮤지컬	
	가족극장시리즈2 〈반짝 내 맘〉	뮤지컬	자체 제작공연
7월	ASAC공연예술제	연극	
	아침음악살롱3	클래식	
8월	청소년음악회	클래식	
9월	아침음악살롱4	클래식	
	10주년 기념식 축하공연	행사	
10월	우수소극장시리즈 〈로룡찬 유랑극장〉	연극	
	몸짓페스티벌	페스티벌	
11월	〈프랑켄슈타인〉	연극	
	아침음악살롱5	클래식	
12월	창작화곡공모 수상작 〈엄마의 이력서〉	연극	자체 제작공연
	유키 구라모토 & 용재 오늘의 크리스마스 콘서트	콘서트	
	송년음악회(KBS교향악단)	클래식	

\*상기 공연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 기본 프로그램 소개


월별	1월		
공연명	〈노트르담 드 파리〉	장르	뮤지컬
공연장	해돋이극장		
내용	<p>15세기 프랑스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을 배경으로 이방인이었던 집시여인을 사랑한 꼽추 콰지모도의 슬픈 사랑 이야기를 다룬 빅토르 위고의 동명 작품을 원작으로 탄생한 프랑스 대표 뮤지컬.</p> <p>출연 : 홍광호, 윤형렬, 윤공주, 마이클 리, 정동하, 전동석, 민영기, 최민철 외</p>		


월별	4월		
공연명	마르고 닳도록	장르	연극
공연장	달맞이극장		
내용	<p>국립극단 역사상 가장 재미있고 웃기는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연극 〈마르고 닳도록〉은 2000년 평론가협회 선정 '올해의 베스트 3', 한국연극협회의 '올해의 연출상'(연출 이상우), 제37회 백상예술대상 연극 부문 작품상, 희곡상(작가 이강백)을 수상한 대중성과 작품성을 고루 갖춘 작품이다.</p> <p>출연 : 이성민, 이대연 외</p>		


월별	5월		
공연명	가족극장시리즈 1 - 〈레슬링시즌〉	장르	연극
공연장	달맞이극장		
내용	<p>원작의 유머러스하면서도 탄탄한 구조에 〈소년이 그랬다〉의 한현주 작가가 우리 이야기와 감수성을 더했고, 서충식 연출가의 손에 닿을 듯한 섬세한 연출과 2개월간의 강도 높은 레슬링 트레이닝으로 단련된 배우들의 다이내믹한 움직임이 유쾌한 긴장감을 더한다. 국립극단의 두 번째 청소년 연극이다.</p>		





월별	5월		
공연명	〈켓초〉	장르	뮤지컬
공연장	해돋이극장		
내용	<p>〈켓초〉는 T. S. 엘리엇의 시 "지혜로운 고양이"가 되기 위한 지침서를 기반으로, 앤드루 로이드 웨버가 작곡을 하고, 1981년 영국 런던 웨스트엔드에서 초연을 했다. 1982년 브로드웨이에 진출해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뮤지컬 중 하나이다. 특히 〈켓초〉의 대표곡 〈메모리〉는 가장 널리 알려진 뮤지컬넘버다.</p>		

월별	6월		
공연명	가족극장시리즈2 - 가제 〈반짝, 내 맘〉	장르	뮤지컬자체 제작공연
공연장	달맞이극장		
내용	<p>동화와 공상을 좋아하는 사고뭉치 열 살 소녀 별이가 꿈나라 속 주인공과 만나며 엄마의 소녀 시절을 통해 엄마를 이해하는 성장기를 다룬 뮤지컬이다. 2012 CJ문화재단 뮤지컬 창작자 개발지원 '크리에이티브마인즈 - 뮤지컬부문' 리딩(Reading)공연 선정작이기도 하다. 작가 : 한지안, 초안 : 지혜원, 작곡가 : 박정아, 연출 : 김태형</p>		


월별	6월		
공연명	2014 ASAC공연예술제	장르	연극
공연장	별무리극장		
내용	<p>지역극단의 활성화를 위한 예술제. 학생부터 주부, 직장인, 연극인으로 구성된 지역극단 단원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고 있으며, 재단 지속사업인 '창작희곡공모사업'과 지역예술단체와의 공동작업을 통한 공연제작 기회를 제공한다. 창작 콘텐츠 부족 해결 등을 위한 첫 발걸음으로 의미있는 프로그램이다.</p>		

월별	10월		
공연명	2014 ASAC몸짓페스티벌	장르	페스티벌
공연장	달맞이극장		
내용	<p>몸짓페스티벌은 춤, 마임, 움직임 등 몸짓으로 소통하는 공연은 난해하고 지루하다는 선입관을 넘어, 몸을 통해 암호를 풀어 나간다. 몸으로 하는 다양한 소통방식을 두루 살펴보고 관객들에게 쉽고 흥미롭게 전하고자 콘서트 형식으로 보여준다.</p>		


월별	11월		
공연명	〈프랑켄슈타인〉	장르	연극
공연장	해돋이극장		
내용	<p>19세기 메리 셸리의 고딕 소설 『프랑켄슈타인』을 원작으로, 영국 국립극장(National Theatre)과 영화감독 대니 보일, 드라마 〈셜록〉의 인기 스타 베네딕트 캄버베치의 만남으로 시작 전부터 많은 화제를 모았다. 연출 : 조광화(레미제라블, 서편제, 남한산성 등), 무대디자인 : 정승호(뮤지컬 레베카 외)</p>		


월별	12월		
공연명	유키 구라모토 & 리처드 용재 오닐의 크리스마스 콘서트	장르	콘서트
공연장	해돋이극장		
내용	<p>유키 구라모토와 리처드 용재 오닐이 준비한 특별한 크리스마스 콘서트! 국내 최정상급 아티스트들과 함께하며 연인과 가족이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크로스오버 콘서트로 마련한다. 출연 : 유키 구라모토, 리처드 용재 오닐, 디토 오케스트라, 지휘 아드리엘 김 외</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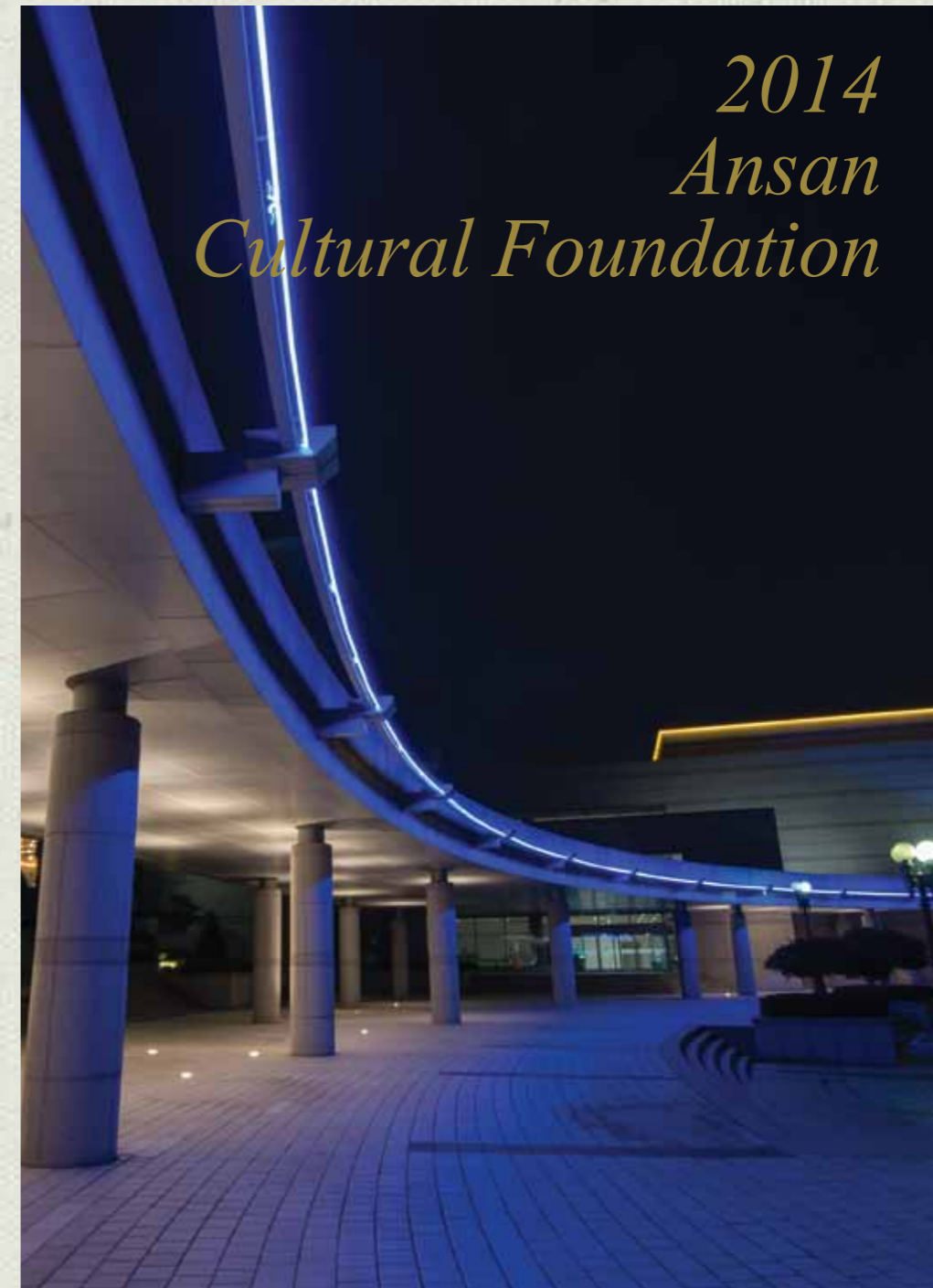
월별	12월		
공연명	2014 창작희곡공모 수상작 '엄마의 이력서'	장르	연극(자체 제작공연)
공연장	별무리극장		
내용	<p>2013년 창작희곡공모 수상작 '엄마의 이력서'을 수준 높은 작품으로 제작해 안산 시민에게 선보인다. 창작희곡공모 수상작 제작 공연은 안산을 배경 또는 소재로 하기에 관객들이 이해하기 쉽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어 지역민들의 정주의식과 향토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p> 		

●기타 시즌 프로그램 소개

월별	3월 ~ 11월		
공연명	아침음악살롱 1~5	장르	클래식
공연장	별무리극장		
내용	<p>객석과 무대의 경계가 없는 작은 공간에서 연주자와 관객이 소통하고 교감하는 하우스콘서트. 2002년 7월 12일 음악가 박창수 씨의 자택에서 출발해 새로운 공연 트렌드로 자리잡았다. 박창수 대표의 '더하우스콘서트'가 ASAC 아침음악살롱 시리즈로 선보인다. 클래식, 프리뮤직, 국악, 대중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이 10m도 떨어지지 않은 거리에서 관객들에게 아름다운 선율을 관객에게 선사한다.</p> 		

월별	10월		
공연명	우수소극장시리즈 <로룡찬 유랑극장>	장르	연극
공연장	별무리극장		
내용	<p>1950년 6월 24일, 한국전쟁 발발 하루 전 전라남도 보성 새재마을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시대극이다. 좋은 시대극은 과거의 한 지점을 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예리하게 분석해 뱀으로써 새로운 역사적 관점을 제시하고 나아가 동시대를 비추는 거울의 역할을 해내는 작품이다. 작가 : 김은성, 연출 : 부새롬, 제작 : 극단 달나라동백꽃</p> 		

공연기획부





# 하늘다리에 보내는 편지

## 안산문화재단 <하늘다리>를 사랑해 주신 독자님들께!

201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말의 해라고 하는데요. 말처럼 기운생동하는 그런 한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2013년 <하늘다리>에 보내주신 관심과 애정이 있어 행복했습니다. 올해도 변함없는 사랑 부탁드리며 지난해 하늘다리에 보여 주신 관심어린 시선들을 모아보았습니다. 공연을 보고 감동 받은 사연에서부터 <하늘다리>에 바라는 점 등 다양한 사연들이 올라왔습니다. 하나하나 독자님들의 사연을 읽다보니 문화소식지로서 어깨가 무거워 집니다.

2014년에는 참신하고 재미있는 기사와 정보로 독자를 찾는 <하늘다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부

### ✉ '아나야'의 신명나는 공연

'민요와 랩, 가요가 만들어 내는 특별한 하모니'를 읽고 국악도 서양음악도 아닌 창작 국악그룹인 '아나야'의 공연에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다양한 문화계 소식을 접할 수 있어 항상 반가운 마음으로 하늘다리를 보고 있습니다. '독자문예'란을 신설해 독자님의 시와 수필을 받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 장○○(부산광역시 북구)

### ✉ 나를 울린 '안녕?! 오케스트라'

'안녕?! 오케스트라의 음악감독 김정선'을 읽고 상처받은 마음을 음악으로 치유하고 지역적 한계를 떠나 다양한 곳에서 연주활동을 펼치면서 안산시민과 일체감이 되어야 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안산문화재단의 공연 소식이 주로 들어가 있는데요. 다른 지방에서 열리는 연극·영화·뮤지컬·콘서트 등의 공연소식도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우○○(서울시 강남구)

### ✉ 안산을 새롭게 느끼게 됐어요!

'2013 안산국제거리극축제'를 읽고 경기도 10대 축제의 하나로 사흘간 펼쳐지는 거리극축제가 도시의 변신과 거리의 재발견이란 슬로건으로 성황리에 전개되리라 기대됩니다. 다음 호에서는 유익하고 효율적인 휴가를 위해 가볼만한 휴가지를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경기도 안산시)

### ✉ 시민들의 휴식터로 자리하길!

안산주민센터에서 이 책을 처음 보았습니다. 서울에서 안산으로 이사와 처음으로 접한 문화소식지였는데 공연과 전시, 문화와 관련된 칼럼들이 실려 있어 재미있게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계 소식을 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4년에도 기대할게요!

- 홍○○(경기도 안산시)

### ✉ 문화를 전달하는 무지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유익한 소식지로서 계속 받아 보고 싶습니다.

- 조○○(경기도 안산시)

### ✉ 무대 비하인드 스토리가 궁금해요!

'2013 안산국제거리극축제' 기사를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항상 자세히 찾아보지 않고 지나가며 들었는데... 미리 기사를 봤다면 더 잘 즐길 수 있었겠다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무대를 기획하고 만드는 사람들! 보여 지는 것 말고 무대 뒤 숨겨진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항상 좋은 공연 많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기구독 신청하니 앞으로는 더 자세히 볼게요!

- 김○○(경기도 안산시)

### ✉ 내 삶의 비타민!! 하늘다리!

피아니스트 윤한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번에 안산에서 공연한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뻐던지... 안산문화재단에서 하는 공연들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챙겨보고 있습니다. 유익하고 재미있는 공연으로 내년에도 활력소가 되어주길 바라보네요.

- 한○○(경기도 안산시)

# Thanks to Sponsorship

문화나누미 '예술타리'를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3년 12월 현재

총 279,437,940원이 모금되었습니다.

※후원금 전액은 문화소외계층 공연관람을 위해 사용됩니다.



## 행복회원

안산시청 복지정책과, 웨보레 안산남부영업소, 신한은행농구단, 안산1대학, 농협중앙회 안산시지부, 기업은행 안산점  
김동호, (주)정든, (주)우리미래, 안산중앙신협, (주)코레코, 윤영중, BM산부인과, 드림웍스, 삼우도시시설관리(주)

## 나눔회원

박수연, 바리스커피, 헬로우오복성, 김용민, 김윤성, 이명식, 허연숙, 황정임, 하양숙, 김영균, 박수현, 버들공방, 이유석

## 보람회원

김원해, 송지현, 백종찬, 조남백, 강재근, 손경오(한국공연예술문화기획), 윈스페이스, 이엔씨커뮤니케이션스  
맑음이벤트, 김봉식, 다원뮤지컬, 세방기획, 김종호, 대신전시(김기명), PMC프로덕션, 바르게살기운동본부  
라이브아트, (주)케이티파워콤, 이양수,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 '따따라', 양미경, 주부연극교실 '유혹', 한진택  
유인철, (주)신원엠에스, (주)가람이엠에스, 클린코리아, 덕영엔지니어링, 김일매, 차중영, SR Ent,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안산시부  
송학천, 보화당, (주)퍼시스케이디, 김명산, 안산시건축사회, 유재학, (주)쇼플레이, 남양숙  
아이다운, 주식회사 애드윅컴, 단청닷컴, 김광우, 자연미감, 신바람놀이학교, 한국공예체험문화협회, And Clay, 아티스토리 미술  
영농조합법인 아이빅스캠프, 켄마트리, 천사부메랑, 사과와 당근 갤러리, 오형선, 정현욱, 권옥숙SRM

# 문화나누美 예술타리



문화나누美 여러분의 전화 한 통이 아름다운 문화 세상을 만듭니다.  
아름다운 얘기[藝術寄附]해요! 휴대폰으로만 참여 가능합니다.